

고시기획

www.gosiplan.com

NEWS

박문각 공무원 스파르타²⁴
기숙연계반
 노량진 실강 + 지정숙소(인실) + 박센 관리
5월 개강반 모집중

빠른 합격의 지름길! 합격이 있는 관리반!
2020년 9급 6개월만에 2관왕 달성
 2관왕 / 최O진 : 2020년 9급 국가직 출장직, 9급 지방직 일행의 다수 최종합격 배출

‘6월5일’ 9급 필기시험 수험생 선택은?

지난해 평균 응시율 일행 69.2% VS 교행 61.06% 기록해

【 9급 일반행정 교육행정 2021년 경쟁률 및 2020년 응시율 현황 】				
구분	9급 일반행정		9급 교육행정	
지역	2021년 경쟁률	2020년 응시율	2021년 경쟁률	2020년 응시율
서울시	14.3대 1	49.3%	22.6대 1	50.89%
경기도	13.4대 1	68.9%	남부 14.6대 1 북부 10.5대 1	남부 60% 북부 69%
인천시	13.2대 1	70.9%	28.8대 1	63.7%
대전시	16.3대 1	62.4%	20.7대 1	53.9%
대구시	17.6대 1	68.4%	27.4대 1	53%
광주시	14.4대 1	66%	104.5대 1	56.2%
울산시	15.9대 1	67.4%	30대 1	69.3%
부산시	16.5대 1	66.9%	19.4대 1	63.73%
강원도	12.7대 1	75.1%	15.9대 1	59.2%
충청남도	11대 1	77.8%	13.2대 1	56.8%
충청북도	10.6대 1	74.3%	35.4대 1	63.5%
전라남도	11.07대 1	74.4%	9.3대 1	62.5%
전라북도	11.7대 1	75.2%	13.4대 1	67%
경상남도	15.7대 1	74.7%	26.1대 1	56.8%
경상북도	13.8대 1	75.7%	11.8대 1	58.1%
제주도	33.8대 1	79.5%	46.6대 1	64%
세종시	17.8대 1	50.3%	15.1대 1	71.6%

2021년 9급 지방공무원 및 9급 교육청 공무원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서울시 교육청 경쟁률 발표를 마지막으로 6월5일에 치러지는 지방직 9급, 교육청 9급 공무원 경쟁률 발표가 모두 마무리됐다.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시험을 실시하는 만큼 각 지역별 경쟁률은 수험생들의 지역 및 시험 선택에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행, 서울시 응시율 가장 낮아

올해 지방직 9급 일반행정 지역별 경쟁률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14.3대 1 ▲

경기도 13.4대 1 ▲인천시 13.2대 1 ▲대전시 16.3대 1 ▲대구시 17.6대 1 ▲광주시 14.4대 1 ▲울산시 15.9대 1 ▲부산시 16.5대 1 ▲강원도 12.7대 1 ▲충청남도 11대 1 ▲충청북도 10.6대 1 ▲전라남도 11.07대 1 ▲전라북도 11.7대 1 ▲경상남도 15.7대 1 ▲경상북도 13.8대 1 ▲제주도 33.8대 1 ▲세종시 17.8대 1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 지방직 9급 일반행정 지역별 필기시험 응시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49.3% ▲경기도 68.9% ▲인천시 70.9% ▲대전시 62.4% ▲대구시 68.4% ▲광주시 66% ▲울산시 67.4% ▲부산시 66.9% ▲강원도 75.1% ▲충청남도 77.8% ▲충청북도 74.3% ▲전라남

도 74.4% ▲전라북도 75.2% ▲경상남도 74.7% ▲경상북도 75.7% ▲제주도 79.5% ▲세종시 50.3% 로 평균 응시율은 69.2%를 기록했었다.

서울시가 49.3%로 가장 낮은 응시율을 보였으며 제주도가 79.5%로 가장 높은 응시율을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교육청 평균 응시율 현황은?

올해 9급 교육행정(일반) 지역별 경쟁률은 ▲서울시 22.6대 1 ▲경기도 △남부 14.6대 1 △북부 10.5대 1 ▲인천시 28.8대 1 ▲대전시 20.7대 1 ▲대구시 27.4대 1 ▲광주시 104.5대 1 ▲울산시 30대 1 ▲부산시 19.4대 1 ▲강원도 15.9대 1 ▲충청남도 13.2대 1 ▲충청북도 35.4대 1 ▲전라남도 9.3대 1 ▲전라북도 13.4대 1 ▲경상남도 26.1대 1 ▲경상북도 11.8대 1 ▲제주도 46.6대 1 ▲세종시 15.1대 1을 각각 기록했다.

광주시 교육청이 104.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라남도 교육청이 9.3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2020년 9급 교육행정직 시·도별 평균 응시율은 61.06%로 지방직 9급 일반행정직 평균 응시율보다 다소 낮았다.

각 시·도 중 서울시 교육청은 가장 낮은 응시율 50.8% 기록한 반면 세종시 교육청이 71.6%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남부 60% △북부 69% ▲인천시 63.7% ▲대전시 53.9% ▲대구시 53% ▲광주시 56.2% ▲울산시 69.3% ▲부산시 63.7% ▲강원도 59.2% ▲충청남도 56.8% ▲충청북도 63.5% ▲전라남도 62.5% ▲전라북도 67% ▲경상남도 56.8% ▲경상북도 58.1% ▲제주도 64%를 기록한 바 있다.

합격생 3명 중 2명은
1년 내 합격
 2020년 박문각공무원 스파르타, 기숙연계반 합격자의 지방직, 국가직 필기까지의 합격기간
5월 개강 모집중
박문각공무원 스파르타 실강반
 PMG 박문각공무원

수험서/자격증
 전문 도서 쇼핑몰
박문각 북스파
 검색창에
북스파로 검색해 보세요~!
 9·7급 공무원 / 경찰공무원
 임용고시 / 공인중개사
 각종 자격증

박문각 ▶ NETclass
 • **LIVE**
스트리밍 강의 & 캠퍼스 학습관
오픈기념무료
 바로 듣고 바로 질문하고
 바로 해결한다!
 PMG 박문각

박문각 일일 모의고사
 2021 국가직 완벽적중(아워/문법)
 모의고사 -제1회- 영어 [어휘]
7만원 → 0원
공무원 / 경찰 영어 실력완성!
 하루 100여 개 이상 “매일매일, 어휘학습”
 영어과목 어휘학습 + 유선/온라인 맞춤 학습지도
 출제 교수진의 “1:1 집중케어”
 * 본 이벤트의 할인키는 21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듀스파박문각 고시기획신문사
 • 등록연월일 : 2014년11월01일
 • 제호 : 고시기획
 • 간별 : 주간(매주 목요일)
 • 인쇄인 : 정희택
 • 발행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71
 • 대표번호 : 02-824-8385

2021년 소방직 필기시험 합격선 현황은?

각 지역별 평균 응시율 공개 ... 공고문 확인해야

【 2021년 소방청 전국 소방공무원 평균 응시율 및 소방(남) 합격선 】								
지역	평균 응시율	소방(남) 합격선	지역	평균 응시율	소방(남) 합격선	지역	평균 응시율	소방(남) 합격선
중앙	72.6%	-	울산	89.5%	370.17점	전북	89.45%	-
서울	80.5%	341.4점	세종	81.43%	366.83점	전남	90.62%	365.02점
부산	84.9%	362.2점	제주	90.7%	73.15점	경북	89%	375.8점
대구	85.25%	371.77점	경기	85.94%	369.6점	경남	90.6%	370.73점
인천	87.8%	372.98점	강원	91.06%	368.95점	창원	86.6%	369.02점
광주	82.5%	376.75점	충북	90.2%	366.88점			
대전	83.2%	379.84점	충남	91%	356.02점			

2021년 소방청 전국 소방공무원 필기 시험 응시율 및 합격선 현황이 공고됐다.

중앙소방공무원 합격선은 ▲구급(소방사) 235점 ▲화화(소방사) 185점이다.

서울시 소방공무원 응시율은 평균 80.5%를 기록했다. 필기시험 합격선 현황은 ▲소방(남) 341.4점 ▲소방(여) 398.51점 ▲구급(남) 215점 ▲구조 200점이다.

부산시 소방공무원 합격선은 ▲소방(남) 362.2점 ▲구조 60점 ▲구급(남) 80점 등이다.

대구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은 ▲소방(남) 371.77점 ▲구급(남) 80점 ▲구조 71.66점 등이다.

인천시 소방공무원 평균 87.8%의 응시율을 기록했으며 합격선은 ▲소방(남) 372.98점 ▲구조(남) 230점 ▲구급(남) 240점 이다.

광주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은 ▲소방(남) 376.75점 ▲구급(남) 68.33점 ▲구조(남) 61.66점 등이다.

대전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은 ▲소방(남) 379.84점 ▲소방(여) 402.03점 ▲구급(남) 180점 ▲구조 205점 등이다.

울산시 소방공무원 합격자는 총 221명이며 합격선은 ▲소방(남) 370.17점 ▲구조(남) 61.67점 ▲구급(남) 71.67점 등이다.

2021년 세종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은 ▲소방(남) 366.83점 ▲구급(남) 205점 ▲구조 180점 등이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은 ▲소방(남) 369.6점 ▲구급(남) 210점 ▲구조(남) 220점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강원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은 ▲소방(남) 368.95점 ▲구급(남) 195점 등이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모집분야별 합격선은 ▲소방(남) 366.88점 ▲구급(남) 60점 ▲구조 65점 등이다.

2021년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은 ▲소방(남) 356.02점 ▲구급(남) 210점 ▲구조(남) 180점 등이다.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모집분야별 합격선은 ▲화재진압(남) 368.58점 ▲구급(남) 73.33점 ▲구조(남) 61.66점 등이다.

2021년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은 ▲소방(남) 365.02점 ▲구조 60점 ▲구급(남) 66.66점 등이다.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 현황을 살펴보면 ▲소방(남) 375.8점 ▲구급(남) 71.67점 등이다.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은 ▲소방(남) 370.73점 ▲소방(여) 406.88점 ▲구급(남) 68.33점 등이다.

창원시 소방공무원 합격선은 ▲소방(남) 369.02점 ▲소방(여) 394.27점 ▲구조 71.66점 ▲구급(남) 75점 등이다.

2021년 제주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은 ▲소방(남) 73.15점 ▲구급(남) 65점 등이다.

99% 적중률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

유명 학습관 제휴, 공급



토즈, 르하임, 공부인, 디플레이스, 비허밍, 스테디고, 아카데미라운지, 어라운드, 영광독서실, 위넨, 지니24, 초심, 커피랑도서관, 포커스, 포텐, 플랜에이, 다울, 공간샘, 하우스터디, 화이트펜슬, 잇을 스파르타, 꿈꾸는공간, 이끌림, 빅스, 타임유, 시작, 프레쉬스터디카페 등

전국 2,000여개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AI데이터 기반

분석 문제 단계별 실시

수험교육 전문기업 박문각은 지난 3월부터 공무원 합격예측의 99% 정확도를 자랑하는 모의고사 서비스를 박문각 남부, 종로, 강남 공무원 직영 학원과 학습관에 이은 제휴 업체로 확대 실시한다고 전했다.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는 출제 위원급 75명의 박문각 공무원 교수진이 엄선한 문제를 빅데이터 기반의 AI시스템이 분석하여 최신 유형의 적중 예상 문항을 추출한 후 6회 이상의 합격전략 연구소 검수를 거쳐 최종 출제된다.

본 모의고사는 ▲영어 일일 모의고사 ▲공통 3과목 주간 모의고사 ▲합격예측 전국 월간 모의고사를 3단계 구성으로 실시한다.

이 단계별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실전 감각 및 적응력이 극대화되기에 빠른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공무원 합격에 이르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다각적 학습 지원 기능 제공

이 외에도, 합격관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박문각합격관리)을 통하여 여러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답안입력 ▲성적관리 ▲동영상 해설강의 ▲1:1 상담 등 다양한 피드백 시

스팀이 제공되며, 박문각이 자랑하는 인공지능 학습지원 솔루션 AI확인학습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학습 지원 기능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99% 합격예측 적중률

체계적 합격 전략 가능

특히,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는 수강생이 선택한 직렬 별 최근 3개년 경성률 및 합격 커트라인을 반영하여 99%에 이르는 합격예측 정확도로 체계적인 합격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과목 및 영역별 전국 단위 응시자들과 성적을 비교하여 수험생의 명확한 위치 진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문각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끊임없는 요청에 따라 박문각 직영 학원 및 학습관에 한해 운영되던 합격예측 모의고사를 ‘토즈, 르하임, 하우스터디, 아카데미라운지, 다울 프리미엄독서실, 영광독서실’ 등 제휴업체 지점으로 확대해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확대 시행되는 합격예측 모의고사를 통해 빠른 성적 향상과 실전 감각 체득을 통해 소망하는 공무원 합격을 달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박문각 합격관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박문각합격관리), 제휴 학습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NAL TEST 15

합격, 박문각 공무원

멘토행정법총론
파이널 모의고사

2021 박문각 공무원 FINAL 모의고사

실전 동형 모의고사 문제지 + 해설지 + OMR카드

전선헌 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김세현 영어 파이널 모의고사 노범석 한국사 파이널 모의고사
멘토행정법총론 파이널 모의고사 이명훈 행정학 파이널 모의고사 오현준 교육학 파이널 모의고사

노량진학원 02)815-7819, 3280-9990 | 온라인 02)3489-9500

합격률 1위! 최고 강사진의 강의!

박문각 올패스

공무원 / 공인중개사 / 경찰 / 편입
임용 / 법무사 / 감평가사 / 전문자격



★★★
김제시 '공무원 준비반'
67명 중 26명
공무원 합격

★★★
공무원 'TS반 수강생'
30명 중 24명
공무원 합격

★★★
법무사
6년 연속
수석/최다 합격

★★★
감정평가사
3년 연속
수석/최다 합격

★★★
교원임용
최고/최대
합격률 및 직중률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1회 시험부터
최초 합격자 배출

★★★
경찰공무원
47% 수강생
2차 필기합격

★★★
편입 '서성한반'
2년 연속
100% 합격신화

박문각만의 **'특별 혜택'**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1. 연 단위 올패스 상품을 월 결제로 부담없이 수강!

(예: 1년 72만원 올패스 상품을 월 6만원 에 무제한 수강)

2. 연 단위 올패스 상품을 기간 별로 더 저렴하게 수강!

(예: 1년 구매 시 40%, 9개월 구매 시 30% 파격할인 제공)

3. 공무원/경찰 올패스 구매 시 온라인모의고사(일일,주간,월간) 무료제공!

4. 올패스 최대 43% 할인! 구매 시 10,000원 추가혜택! (할인 5천원 & 적립 5천원)



올패스 구매하는 방법

- ① 핸드폰으로 각 지점 포스터의 QR코드 스캔
- ② 구매 상품 선택하고 지점 코드(포스터에 표기) 입력 후 결제
(임용 구매시에는 지점에서 별도 구매코드를 받아서 입력)



소방공무원 지역별 체력시험 본격 실시된다

【 2021년 소방청 전국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일정 】					
지역	일정	지역	일정	지역	일정
중앙	6월9일	대전	5월25~26일	충남	5월18,20~21일, 24~6월1일
서울	5월13~26일	울산	5월26~28일	전북	5월17~25일
부산	5월25~27일	세종	5월25일	전남	5월17~28일
대구	5월29~30일	경기	5월13~27일	경북	6월1~8일
인천	5월13~18일	강원	5월31~6월4일	경남	5월18~31일
광주	5월17~20일	충북	5월13~25일	제주	5월24~28일

2021년 소방공무원 채용의 체력시험을 앞두고 있다. 우선 중앙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은 6월9일 중앙소방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총 39명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서울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은 총 766명을 대상으로 5월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 부산시는 올해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을 5월25~27일까지 실시하며 응시대상은 총 406명이다. 대구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은 5월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인천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은 5월13일~18일까지 총 384명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광주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은 총 208명을 대상으로 5월17~20일까지 이어진다. 대전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일정은 5월25일부터 이틀간이다. 울산시 체력시험은 5월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2021년 세종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은 5월25일로 확정됐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일정은 5월13~27일까지이며 총 1천6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은 5월31일~6월4일까지 진행된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은 5월13~25일까지이며 충청남도 체력시험은 5월18,20~21일, 24~6월1일까지 진행된다. 전라북도 체력시험은 5월17일~25일까지이며 전라남도 체력시험은 5월17~28일이다. 경상북도에는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을 6월1~8일 실시하며 경상남도에는 5월18~31일까지 총 1천131명을 대상으로 체력시험이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은 5월24일~28일까지 총 26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합격자 명단은 6월15일에 공고 된다.

충남·대전, 9급 필기시험 장소는?

2021년 충청남도 제1회 공임 및 제2회 경임 지방공무원의 지역별 필기시험 장소 ▲천안시 14개교 ▲서산시 3개교 ▲당진시 3개교로 확정됐다. 이번 필기시험은 ▲천안불당중 ▲천안월봉중 ▲천안월봉고 ▲천안쌍용중 ▲천안백석중 ▲천안가은중 ▲천안여자상업고 ▲천안상업고 ▲천안두정중 ▲천안성정중 ▲천안제일고 ▲천안오성중 ▲천안불무중 ▲서산여중 ▲서산중앙고 ▲서산중 ▲당진중 ▲당진고 ▲호서중 ▲천

안중에서 각각 치러진다. 이어 대전시도 제1회 공개(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 장소 17개학교를 발표했다. 시험장소는 ▲월평중 ▲만년중 ▲도안중 ▲충남여중 ▲글꽃중 ▲봉명중 ▲노은중 ▲태평중 ▲송촌중 ▲충남중 ▲하기중 ▲매봉중 ▲둔산중 ▲관저중 ▲남선중 ▲도마중 ▲괴정중으로 배치됐다. 참고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 7월9일 ▲대전시 7월2일 공고될 예정이다.

『2021년 교육청 9급 채용 비교』 ⑤ 대전시 신규채용 전년대비 소폭 증가

【 2020~2021년 대전시 교육청 9급 공무원 교육행정직 채용 현황 】						
구분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	경쟁률	합격선
연도		2021년	2020년			
교육 행정	일반	70명	63명	1천489명	23.63대 1	384.01점
	장애인	3명	3명	27명	9대 1	262.38점
	저소득	2명	2명	19명	9.5대 1	318.01점

대전시 교육청은 올해 9급 교육행정직 75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 결과 각 직렬별 경쟁률은 ▲일반 20.7대 1 ▲장애인 7.6대 1 ▲저소득층 14.5대 1로 각각 나타났다. 참고로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해 ▲일반 63명 ▲장애인 3명 ▲저소득층 2명을 각각 선발했으며 경쟁률은 ▲일반 23.63대 1 ▲장애인 9대 1 ▲저소득층 9.5대 1을 기록했으며 필기시험 합격선은 ▲일반 384.01점 ▲장애인 262.38점 ▲저소득 318.01점이다.

기상청 기상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1년 기상청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선이 발표됐다. 각 모집분야별 필기시험 합격선은 ▲일반 78점 ▲저소득 51점 (이상 전국모집) ▲제주 57점이다. 기상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76명을 대상으로 6월7일부터 11일까지 면접시험을 실시 할 예정이다. 참고로 면접시험 진행은 출석 확인, 자기기술서 작성(20분), 면

접 순이므로 응시생들은 이를 유념해야 한다. 기상청은 올해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최종 합격자 명단을 6월30일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 김제시 총 29명 합격자 배출!! 최종합격 1명(경찰직)
| 9급 필기합격 25명(국가직: 8명, 지방직: 17명)
| 김제시 일반행정직 9급 필기합격, 10명 중 4명은 박문각 수강
| 2020년 2월, 2019년 지방직 추가모집 3명 합격

■ 철원군 7명·고성군 3명 지방직 필기합격!

김제시 9급 공무원 필기합격, 10명중 4명은

박문각 공무원 학습관리 시스템



40%

10명중 4명 합격

- 일일 / 주간 / 월간 합격예측 모의고사로 빈틈없는 성적관리
- 강사 / 컨설턴트 / 합격멘토와 함께하는 3:1 학습관리
- 순공시간 확보와 공부 습관을 기르는 체계적인 생활관리

박문각 학습관리 시스템 도입, 지자체 ‘공무원시험 준비반’ 합격자 배출 잇따라

수험전문 교육기업 박문각은 위탁 교육계약 체결 기관인 김제시 ‘공무원시험 준비반’ (이하 공무원 준비반)에서 경찰직 최종 합격자와 17명의 지방직 시험에 이은 8명의 국가직 시험 추가 필기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전했다. 이는 70여 명이 채 안 되는 ‘공무원시험 준비반’ 수험생 중 26명이 임용시험 합격에 성공한 것으로 자체 합격률 38.8%에 이르는 결과이다. 특히, 김제시 일반행정직 9급 필기 합격자 21명 중 9명이 공무원 준비반 출신으로 합격 인원의 42.8%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성과는 1타 강사에만 의존하는 과열된 공무원 교육 시장에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성공 사례로, 수강생별 제대로 된 학습 프로그램과 관리 시스템이 공무원 시험 합격에 있어 강사와 브랜드의 인지도보다 우선함을 잘 입증하고 있다.

박문각은 이를 위해 강의 내용을 꾸준히 점검하고,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일일·주간·월간 합격예측 모의고사와 강사 및 컨설턴트, 합격 멘토와 함께하는 3:1학습관리를 통해 궁금한 내용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합격예측 월간 모의고사는 최근 3개년 실시된 공무원 시험의 직렬별 결과와 경쟁률을 분석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99%에 이르는 합격예측 적중률을 통해 응시 수험생별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합격 전략을 제공한다. 공무원 준비반에서 필기 합격에 성공한 A씨는 “처음 치렀던 저조한 모의고사 성적에 낙담했었지만 학습관리 시스템에 따라 꾸준히 강의를 듣고 모의고사에 응시하다 보니 어느덧 필기 합격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며, “소위 1타 강사로 통칭되

는 강사의 인지도에 집착하기보단 본인 스스로의 학습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학습 시스템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후배 수험생들에게 “순공 시간을 극대화하고, 명확한 학습 성과분석 및 성적관리가 가능하고, 전문가와 실시간 학습 및 수험 상담 가능한 공무원 학습 시스템을 찾았다면 박문각을 적극 추천한다”라고 했다. 현재 박문각 공무원 강의 및 학습관리 시스템은 전국 박문각 직영 학습센터와 19개 제휴업체 1,200여개 스터디카페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박문각은 빅데이터 기반의 AI확인학습 등 수험생의 취약부분을 집중 보완하여 실수를 줄이고 빠른 합격에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학습 시스템 개발과 도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PMG 박문각

박문각

신청지점 직배송

합격예측

모의고사



#공무원 #소방직 #경찰

지금 전국 2,000여 개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지점에서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스터디카페 L'Chayim STUDY CAFE	 ACADEMY PLUS CO.,LTD. ACADEMY LOUNGE
D PLACE	영광독서실	하우스터디
 다 올 STUDY PLACE	 Genie24 STUDY CAFE	 공부인 스터디카페 study in open space
 공간 Study &Cafe	 화이트펜슬 THE PREMIUM STUDY CAFE	 STUDY CAFE WINNEN 꿈에 올라서다
 STUDYGO	 커피랑도서관 Coffee Laon Library	 POTEN PREMIUM STUDY CAFE
 Beraming studycafe	 CHOSIM 프리미엄 스터디카페	 A.ROUND PREMIUM STUDY CAFE
 잇올 스파르타	plan A _____.	 이끌림 스터디카페 IKKEULLIM STUDY CAFE
 Premium STUDY CAFE	 꿈꾸는 공간 STUDY CAFE	 Fresh 스터디카페 PREMIUM STUDY CAFE FRESH
 SIZAK LOUNGE TIME MAKETH MAN	 Time-U 타임유 스터디카페	박문각과 제휴 학습관의 특급 콜라보레이션!

『2021년 지방세 9급 필기시험 대비』 ② 강원도 채용인원 급감 ... 평균 경쟁률 12.78대 1로 상승해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6월5일에 치러진다.

각 지역별 채용인원에 이어 경쟁률 현황도 모두 공고됐다. 『고시기획』은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대비로 지방세 9급 채용 현황을 살펴본다.

【 2020-2021년 강원도 지방직 9급 지방세(일반) 채용 현황 】						
구분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		경쟁률	
지역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강원도	1명	-	35명	-	35대 1	-
춘천시	-	3명	-	69명	-	23대 1
원주시	1명	6명	28명	73명	28대 1	12.17대 1
강릉시	3명	1명	88명	26명	29.33대 1	26대 1
동해시	2명	2명	17명	17명	8.5대 1	8.5대 1
태백시	2명	3명	7명	9명	3.5대 1	3대 1
속초시	-	4명	-	30명	-	7.5대 1
홍천군	1명	1명	10명	11명	10대 1	11대 1
횡성군	1명	-	9명	-	9대 1	-
영월군	1명	3명	5명	7명	5대 1	2.33대 1
정선군	-	4명	-	16명	-	4대 1
평창군	1명	-	8명	-	8대 1	-
철원군	1명	-	5명	-	5대 1	-
화천군	1명	-	3명	-	3대 1	-
양구군	1명	-	2명	-	2대 1	-
인제군	1명	2명	5명	9명	5대 1	4.5대 1
고성군	-	3명	-	15명	-	5대 1
양양군	1명	2명	8명	11명	8대 1	5.5대 1
소계	18명	34명	230명	293명	12.78대 1	8.62대 1

*선발인원 34명→18명으로 줄어

2021년 강원도 지방직 9급 지방세(일반) 선발예정인원은 총 18명으로 지난해 선발인원 34명보다 크게 줄었다.

우선 올해 지방세(일반) 신규채용을 실시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1명 ▲원주 1명 ▲강릉 3명 ▲동해 2명 ▲태백 2명 ▲홍천 1명 ▲횡성 1명 ▲영월 1명 ▲평창 1명 ▲철원 1명 ▲화천 1명 ▲양구 1명 ▲인제 1명

▲양양 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달리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은 춘천, 속초, 정선, 고성이다.

전년대비 선발인원이 줄어든 지역을 살펴보면 원주 6명→1명, 태백 3명→2명, 영월 3명→1명, 인제 2명→1명, 양양 2명→1명으로 감소했다.

참고로 2020년 강원도 지방직 9급 지방세(일반) 지역별 선발인원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 3명 ▲원주 6명 ▲강릉 1명 ▲동해 2명 ▲태백 3명 ▲속초 4명 ▲홍천 1명 ▲영월 3명 ▲정선 4명 ▲인제 2명 ▲고성 3명 ▲양양 2명이었다.

*출원인원 전년대비 소폭 감소

원서접수 결과 출원인원은 총 230명으로 지난해 293명보다 줄었다.

각 지역별 원서접수 인원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35명 ▲원주 28명 ▲강릉 88명 ▲동해 17명 ▲태백 7명 ▲홍천 10명 ▲횡성 9명 ▲영월 5명 ▲평창 8명 ▲철원 5명 ▲화천 3명 ▲양구 2명 ▲인제 5명 ▲양양 8명이다.

강릉시에 가장 많은 88명이 출원했고 양구에는 단 2명이 원서접수를 마쳤다.

지난해 각 시군별 출원인원은 ▲춘천 69명 ▲원주 73명 ▲강릉 26명 ▲동해 17명 ▲태백 9명 ▲속초 30명 ▲홍천 11명 ▲영월 7명 ▲정선 16명 ▲인제 9명 ▲고성 15명 ▲양양 11명이었다.

원주시에는 지난해 73명이 원서를 접수했으나 올해 선발인원이 급감함에 따라 단 28명만이 접수를 마쳐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강릉시 출원인원은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88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쟁률 8.62대 1→12.78대 1로 상승해

2021년 강원도 지방직 9급 지방세(일반) 평균 경쟁률은 12.78대 1을 기록했다.

각 지역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강원도 선발이 35대 1로 가장 높았고 강릉이 29.33대 1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원주 28대 1 ▲동해 8.5대 1 ▲태백 3.5대 1 ▲홍천 10대 1 ▲횡성 9대 1 ▲영월 5대 1 ▲평창 8대 1 ▲철원 5대 1 ▲화천 3대 1 ▲양구 2대 1 ▲인제 5대 1 ▲양양 8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참고로 지난해 강원도 지방직 9급 지방세(일반) 평균 경쟁률은 8.62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지역별 경쟁률은 다음과 같다. ▲춘천 23대 1 ▲원주 12.17대 1 ▲강릉 26대 1 ▲동해 8.5대 1 ▲태백 3대 1 ▲속초 7.5대 1 ▲홍천 11대 1 ▲영월 2.33대 1 ▲정선 4대 1 ▲인제 4.5대 1 ▲고성 5대 1 ▲양양 5.5대 1이었다.

*지난해 응시율 및 합격선은?

다음 달 치러지는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관심은 지역별 응시율 및 합격선 증감여부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지방직 9급 지방세(일반) 지역별 필기시험 응시율은 평균 74.74%를 기록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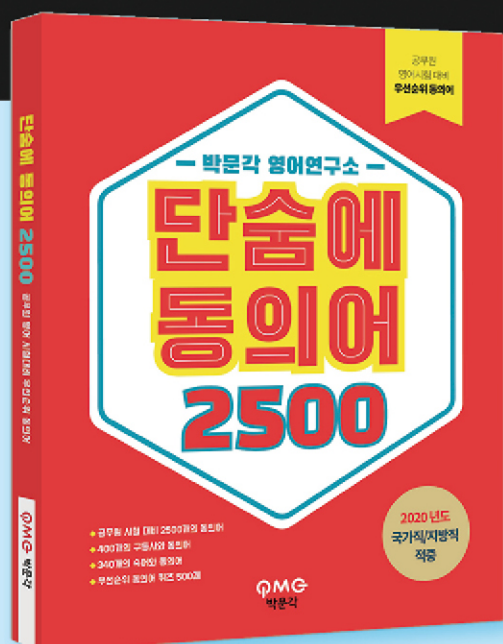
시·군별 필기시험 응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춘천 78.26% ▲원주 72.6% ▲강릉 57.69% ▲동해 100% ▲태백 77.78% ▲속초 86.67% ▲홍천 81.82% ▲영월 57.14% ▲정선 56.25% ▲인제 88.89% ▲고성 46.67% ▲양양 90.91%였다.

참고로 지난해 강원도 지방직 9급 지방세(일반) 채용은 시군별 필기시험 응시율 편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동해시가 응시율 100%를 기록한데 이어 양양군이 90.91%의 높은 응시율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으로 강릉 57.69%, 정선 56.25%, 고성 46.67%의 응시율에 그쳤었다.

지난해 평균 합격선을 살펴보면 ▲춘천 73.89점 ▲원주 75.32점 ▲강릉 67.84점 ▲동해 82.1점 ▲태백 67.58점 ▲속초 69.89점 ▲홍천 67.38점 ▲영월 58.04점 ▲정선 55.21점 ▲인제 59.02점 ▲고성 54.88점 ▲양양 71.42점을 기록했었다.

박문각 공무원



단숨에 동의어 2500



30일 공무원 영어 어휘 마스터!

지금 박문각 북스파(www.bookspa.co.kr)에서 단숨에 동의어 2500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박문각 공무원

전 강 좌 무 제 한 수 강 에 캠프 관리, 환 급 까 지 !

평생 0원 올패스

올패스 22기 5월 31일(월) 마감 이후 **가격 인상!**

박문각 올패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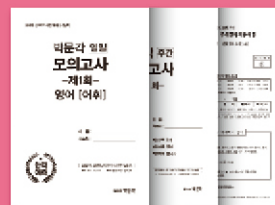


국어 / 영어 / 한국사
기본서 3권 무료 제공!

*9급 올패스 구매 시 해당



공무원 전과목
무제한 수강



매일 / 매주 / 매월
합격예측 모의고사



학원이 직접 관리하는
박문각 캠퍼스리디

노량진학원 02)815-7819, 3280-9990 | 온라인 02)3489-9500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국어 기출문제 및 해설(4)

| 이유진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1. ㉠~㉣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폭설, 즉 대설이란 많은 눈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 ㉠ 그런데 눈은 한 시간 안에 5cm 이상 쌓일 수 있어 순식간에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 ㉡ 또한, 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이다.
- ㉢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 ㉣ 이때 대설의 기준으로 주의보는 24시간 새로 쌓인 눈이 5cm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 ㉤ 이뿐만 아니라 운송, 유통, 관광, 보험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① ㉠-㉢-㉡-㉣-㉤ ② ㉠-㉣-㉢-㉡-㉤
- ③ ㉢-㉡-㉣-㉠-㉤ ④ ㉢-㉠-㉢-㉡-㉤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배열

☆ 정답 해설:

제시된 첫째 문장은 폭설, 즉 '대설'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 전환의 접속어 '그런데'를 쓴 뒤, 눈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시하였다.

㉡ 대등 병렬의 접속어 '또한'을 쓴 뒤, '경보'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문장 앞에는 '경보'와 유사한 다른 개념이 제시되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제한적 정보를 제시하는 '다만'을 쓴 뒤, '산지'에서는 경보 발령 상황이 다름을 제시하였으므로 ㉢은 ㉡ 뒤에 위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선지 ②, ④ 탈락

㉣ '이때'라는 지시어를 통해 바로 앞의 내용을 이어받아 대설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문장에서 '대설'이 처음 소개되었으므로, ㉣은 첫째 문장 뒤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주의보'는 '경보'와 유사한 개념 이므로, ㉣ 뒤에는 ㉤이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 선지

①, ②, ④ 탈락

㉤ 대등 병렬의 접속어 '이뿐만 아니라'를 쓴 뒤, 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의 앞에는 ㉠이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종합하면, '㉢-㉡-㉣'은 대설 주의보와 대설 경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은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 된다.

12. 다음 글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 발달하게 된 것은 바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 언어와 사고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발달하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언어와 사고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 ① 영어의 '쌀(rice)'에 해당하는 우리말에는 '모', '벼', '쌀', '밥' 등이 있다.
- ② 어떤 사람은 산도 파랗다고 하고, 물도 파랗다고 하고, 보행 신호의 녹색등도 파랗다고 한다.
- ③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사물의 개념은 머릿속에서 뾰돌는데도 그 명칭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다.
- ④ 우리나라는 수박(watermelon)은 '박'의 일종으로 보지만 어떤 나라는 '멜론(melon)'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한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사례 추론

☆ 정답 해설:

제시된 글은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반영하며, 인간의 언어와 사고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제시된 글의 사례로는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호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사례여야 한다. 그러나 사물의 개념은 머릿속에서 뾰돌는데도 그 명칭을 떠올리지 못하는 상황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제시된 글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삼는 문화권이기에 때문에 '쌀'과 관련한 사고가 발달하여 '모', '벼', '쌀', '밥' 등의 어휘가 분화되었다. 따라서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 ② '산', '물', '보행 신호의 녹색등'의 색이 물리적으로는 모두 다르지만 사람에 따라 하나의 어휘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이다. 이는 가지고 있는 언어에 따라 사고가 범주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우리나라에서는 수박을 '박'의 일종으로 보아 '수박'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나라는 수박을 'melon'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watermelon'이라고 부른다. 이는 우리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적절한 사례이다.

13.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 변지리가 천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내가 그 뜻을 물었더니, 문장 공부를 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때마침 이날 우리 아이들이 나무를 심었기에 그 나무를 가리켜 이렇게 말해 주었다.
-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가장 먼저 뿌리를 북돋우고 줄기를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한다. ... (중략) ... 나무의 뿌리를 북돋아 주듯 진실한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쏟고, 줄기를 바로잡듯 부지런히 실천하며 수양하고, 진액이 오르듯 독서에 힘쓰고, 가지와 잎이 돌아나듯 널리 보고 들으며 두루 돌아다녀야 한다.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을 헤아려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글이요,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훌륭한 문장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서사 ② 분류 ③ 비유 ④ 대조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전개 방식 긍정 발문

☆ 정답 해설:

글쓰기는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며 글쓰는 것을 나무가 자라나는 일에 빗대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로 표현하는 방식'을 뜻하는 '비유'이다.

☆ 오답 해설:

- ① '서사'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진시키기 위해 움직임이나 변화, 진행 과정을 진술하는 방식이다. 제시된 글에는 변의지가 글쓰기를 찾아오고 글쓰기가 변의자에게 답을 주는 사건이 있긴 하지만, 이 글에서 '서사'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주된 서술 방식이 아니다.
- ② '분류'는 여러 대상을 일정 기준에 의해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제시된 글에는 분류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④ '대조'는 대상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시된 글에서는 대조가 드러나 있지 않다.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언어마다 고유의 표기 체계가 있는데, 이는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알파벳 언어는 표기 체계에 따라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한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거의 일대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가 있다. 이 두 언어의 사용자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더라도 보자마자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영어는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낮은 언어이다. 영어는 발음이 아예 나지 않는 묵음과 같은 예외도 많은 편이고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도 매우 다양하다.
- 한편 알파벳 언어를 읽을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는 유사하지만 뇌의 부위에 의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동일하게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하지만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 의존하는 반면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음운 처리에 연관된 뇌 부위에 더 의존한다. 왜냐하면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규칙적인 음운 처리 규칙을 적용하는 반면에,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해 둔 수많은 예외들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 ①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되는데,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은 철자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② 영어 사용자는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욱 의존한다.
- ③ 이탈리아어는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이어서 낯선 단어를 발음할 때 영어에 비해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높다.
- ④ 영어는 음운 처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이 많아서 스페인어에 비해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첫째 문단에 따르면 '알파벳 언어는 표기 체계에 따라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철자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이라는 ①은 글의 내용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 오답 해설:

- ② 둘째 문단에 따르면,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모두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그리고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는 영어를 읽는 사람이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에 비해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 의존한다. 따라서 영어 사용자는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도 음운 처리에 연관된 뇌 부위보다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 의존할 것이다.
- ③ 첫째 문단에 따르면,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는 한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더라도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 즉 이탈리아어는 낯선 단어를 발음할 때 영어에 비해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④ 첫째 문단에 따르면, 영어는 묵음과 같은 예외가 많고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도 매우 다양하다. 이는 스페인어에 비해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라는 의미이다.

박문각 공무원

바로 듣고, 풀고, 질문하는 박문각 넷클래스 지방직 파이널 스퍼트 +15점

박문각 신규 1타 교수진의 시험 전

찍기특강 100제

5월 17일부터 넷클래스에서 무료로 공개 됩니다!



Coming Soon

노량진학원 02)815-7819, 3280-9990 | 온라인 02)3489-9500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한국사 기출문제 및 해설(4)

| 선우빈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6. 밑줄 친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라는 형식적인 법 절차와 권력 남용으로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 인권과 존엄성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남용에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 (중략) ...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한 사람의 집권자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 ①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 ②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였다.
- ③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 ④ 한일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6·3 시위가 있었다.

16. 유신 헌법 체제하의 사건 이해

답 ①

<정답 찾기>

밑줄 친 '헌법'은 유신 헌법(1972. 11)으로, 이 헌법은 1972년부터 1980년 제8차 개헌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행되었다.

① 부·마 민주 항쟁(1979)

<선지 분석>

② 국민 교육 헌장 선포(1968), ③ 7·4 남북 공동 성명(1972. 7.), ④ 6·3 시위(1964)

17. 밑줄 친 '회의'에서 있었던 사실은?

본 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하며,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 (중략) ...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아래에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 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상정되었다.
- ② 박은식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③ 민족유일당운동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이 참가하였다.
- ④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17. 국민 대표 회의의 이해

답 ④

<정답 찾기> 밑줄 친 '회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국민 대표 회의(1923)이다.

④ 임시 정부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국민 대표 회의가 소집되었으나, 임시 정부를 해체하고 연해주로 옮겨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파(신채호·박용만·신숙 등)와 임시 정부의 조직만 개조하자는 개조파(안창호·여운형 등)가 맞선 상태에서 결렬되었다.

<선지 분석>

① 건국 강령 반포(1941)

② 임시 정부를 유지하자는 이동녕, 김구 등의 현상 유지파에 의해 1925년 이승만이 해임되고, 박은식이 2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

③ 중·일 전쟁(1937) 발발 이후 민족 연합 전선을 형성하여 대일 항전을 추진하고자 했던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18.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따른다.
제4조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 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① 농상공부를 주무 기관으로 하였다.
- ② 역둔토, 궁장토를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 ③ 토지 약탈을 위해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였다.
- ④ 준공 퇴치, 농가 부채 근절을 목표로 내세웠다.

18. 토지 조사 사업의 이해

답 ②

<정답 찾기>

제시문은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1910~1918)을 위해 제정한 토지 조사령(1912)이다.

② 조선 총독부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국유지(궁방토·역둔토), 촌락 공유지, 미신고지 등을 탈취하였다.

<선지 분석>

① 농상공부는 2차 갑오개혁(1895) 당시 농상아문과 공무아문을 합한 관청으로, 농업·상업·공업 및 우체·전신·광산·선박·해원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③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인 1908년에 설립되었다.

④ 농촌 진흥 운동(1932)에 대한 설명이다.

19. 개항기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증개 활동을 하였다.
- ② 조청 무역장정으로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 ③ 일본 상인은 면제품을 팔고 쇠가죽, 쌀, 콩 등을 구입하였다.
- ④ 조일 통상 장정의 개정으로 곡물 수출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19. 개항기 무역의 이해

답 ②

<정답 찾기>

②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이 체결되면서 청 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상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초래되기는 했으나,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지르지는 못하였다.

<선지 분석>

① 개항 직후 객주는 외국 상품을 개항장과 내륙 시장에 연결·유통 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였다.

③ 일본 상인들은 개항 초기에는 주로 영국산 면직물을 조선에 팔고 조선에서 쇠가죽, 쌀 등 원자재를 수입해 갔다.

④ 1883년 개정 조·일 통상 장정에 곡물 수출 금지령(방곡령)이 포함되었다.

20.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역에 뽑힌 장정에게 군포를 거두었는데, 그 폐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뼈를 깎는 원한을 가졌다. 그런데 사족들은 한평생 한가하게 놀며 신역(身役)이 없었다. ... (중략) ... 그러나 유속(流俗)에 끌려 이행되지 못하였으나 갑자년 초에 그가 강력히 나서서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稅納錢) 2민(緡)을 바치게 하니, 이를 동포전(洞布錢)이라고 하였다.

—『매천야록』—

- ① 만동묘 건립을 주도하였다.
- ② 군국기무처 총재를 역임하였다.
- ③ 통리기무아무를 폐지하고 5군영을 부활하였다.
- ④ 탕평 정치를 정리한 「만기요람」을 편찬하였다.

20. 흥선대원군의 이해

답 ③

<정답 찾기> 밑줄 친 '그'는 흥선대원군이다.

③ 1873년에 하야한 흥선대원군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재집권하면서 그 동안 민씨 정권이 추진해 온 개화 정책을 되돌리는 정책을 실시하여 통리기무아문과 별기군을 폐지하고 5군영과 삼군부를 부활시켰다.

<선지 분석>

① 흥선대원군은 만동묘와 폐단이 큰 서원을 철폐하였다.

② 김홍집에 대한 설명이다.

④ 「만기요람」은 순조 때(1808), 서영보·심상규 등이 왕명에 의해 편찬한 책이다.

차원이 다르다! 선우한국사



· 학습 상담 & 한국사 관련 정보

: 카페(cafe.naver.com/swkuksa)

· 한국사 관련 이슈 무료 동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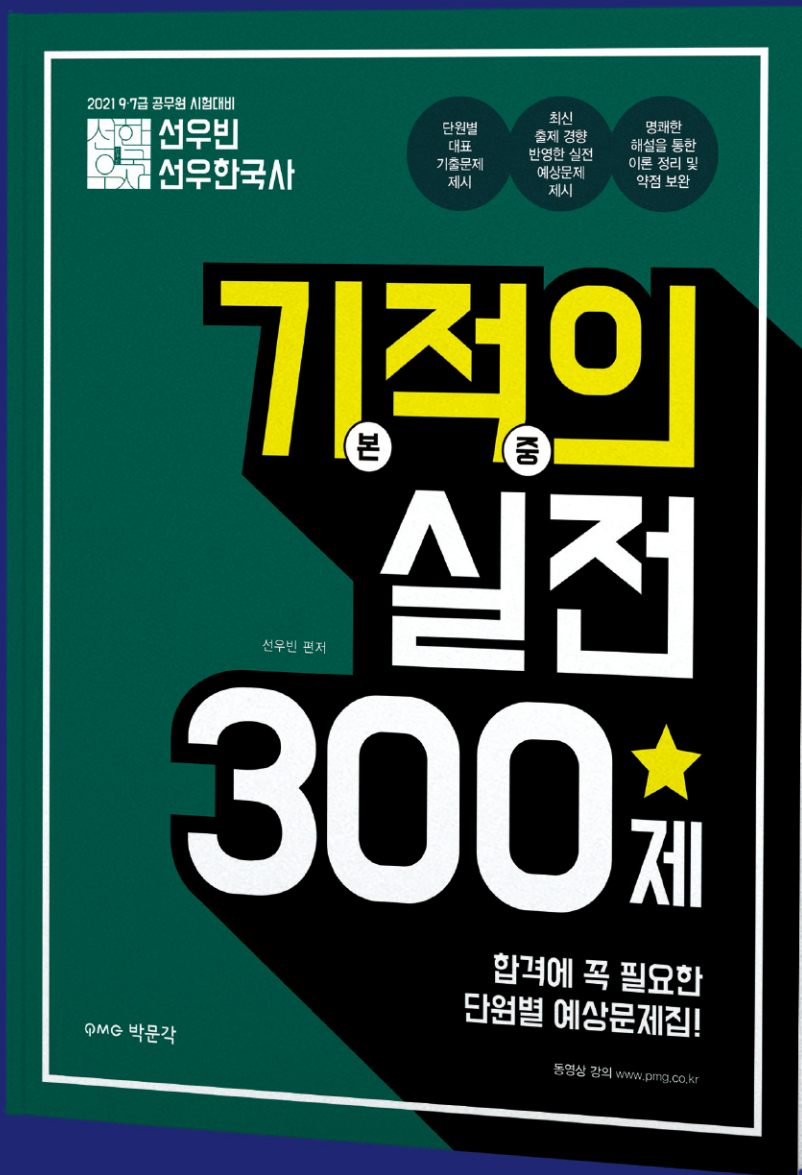
: YouTube 채널 선우빈한국사

선우한국사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박문각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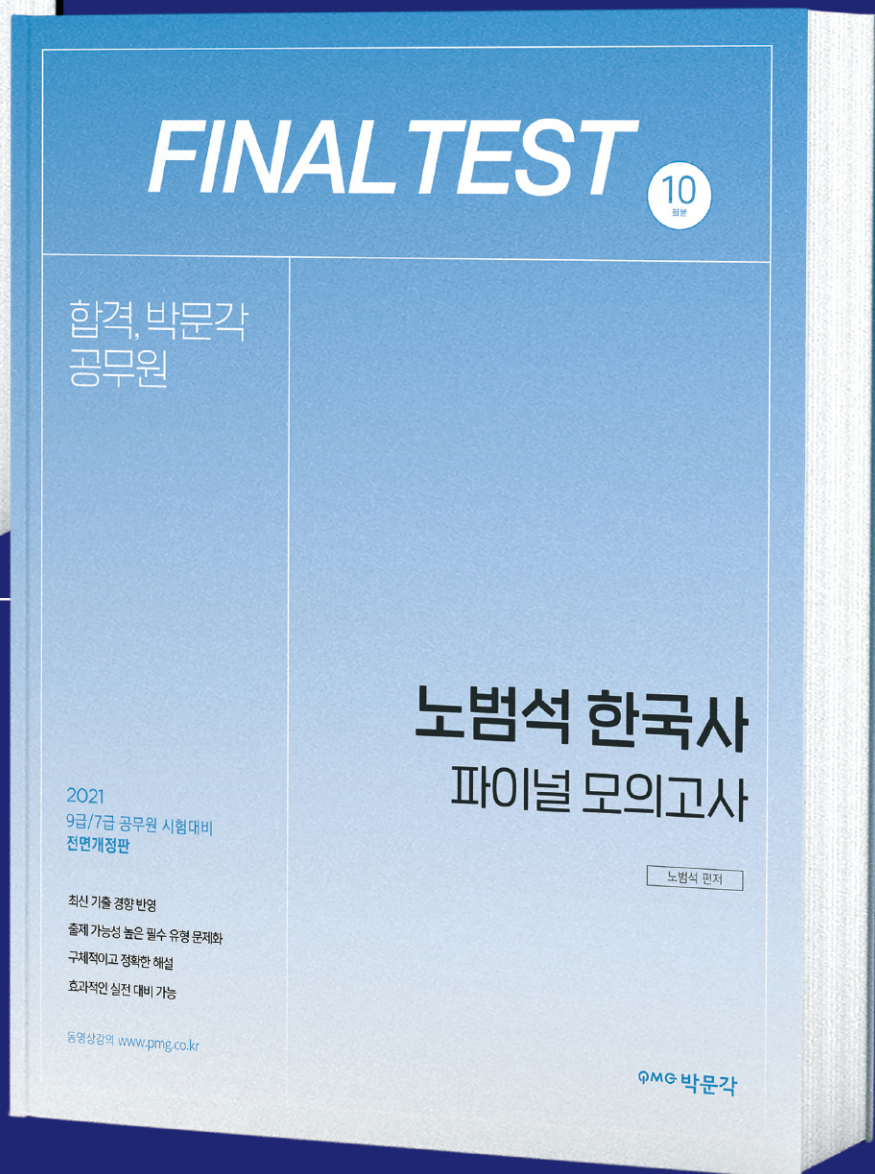
2021 국가직 시험 합격 기원

한국사 마무리합격시리즈



합격에 꼭 필요한
단원별 예상문제집

대표
기출문제
+
기출지문
별도 정리



테마별 모의고사
5회
+
전 범위 모의고사
5회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필수 유형 문제화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영어 기출문제 및 해설(1)

| 김세현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01.~03.]

01. Privacy as a social practice shapes individual behavior in conjunction with other social practices and is therefore central to social life.

- ① in combination with ② in comparison with
- ③ in place of ④ in case of

정답 ①

[해설] in conjunction with는 ‘~와 함께, ~와 협력하여’의 뜻으로 이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in combination with이다.

[해석] 사회적 관행으로 사생활은 다른 사회적 관행과 함께하는 개인의 행동을 만들고 그래서 사회적 삶의 중심이 된다.

[어휘] privacy 사생활 practice ① 실행, 실천 ② 훈련, 연습 ③ 관행, 관례
in comparison with ~에 비해서, ~와 비교해 볼 때 in place of ~대신에, ~을 대신해서
in case of ① 만약 ~ 한다면 ② ~의 경우에 대비해서

02. The influence of Jazz has been so pervasive that most popular music owes its stylistic roots to jazz.

- ① deceptive ② ubiquitous
- ③ persuasive ④ disastrous

정답 ②

[해설] pervasive는 ‘만연한, 퍼지는, 스며드는’의 뜻으로 이와 가장 가까운 유의어는 ubiquitous이다.

[해석] 재즈의 영향력은 너무 만연해서 대부분의 팝음악은 그 스타일의 뿌리가 재즈에 기인한다.

[어휘] owe A to B ① A는 B덕분(덕택)이다 ② A는 B에 기인하다(때문이다)
deceptive 속이는 ubiquitous 도처에 있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persuasive 설득력 있는, 설득적인 disastrous 재앙의

03. This novel is about the vexed parents of an unruly teenager who quits school to start a business.

- ① callous ② annoyed
- ③ reputable ④ confident

정답 ②

[해설] vexed는 ‘화가 난, 짜증내는’의 뜻으로 이와 가장 가까운 유의어는 annoyed이다.

[해석] 이 소설은 학교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다루기 힘든 십대를 둔 화난 부모님에 관한 것이다.

[어휘] unruly 다루기 힘든, 제멋대로 구는 callous 냉담한
reputable 평판이 좋은 confident 자신감이 있는, 확실하는

04.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group of young demonstrators attempted to _____ the police station.

- ① line up ② give out
- ③ carry on ④ break into

정답 ④

[해설] 시위자와 경찰서의 관계를 통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 할 수 있다. 문맥상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break into (침입하다)이다.

[해석] 한 무리의 젊은 시위자들이 경찰서에 침입을 시도했다.

[어휘] demonstrator 시위자 attempt 시도하다
police station 경찰서 line up 줄을 서다, 일렬로 서다
give out ① 바닥(동)이 나다 ② 정지하다, 멈추다 carry on 계속하다

05.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The most notorious case of imported labor is of course the Atlantic slave trade, which brought as many as ten million enslaved Africans to the New World to work

the plantations. But although the Europeans may have practiced slavery on the largest scale, they were by no means the only people to bring slaves into their communities: earlier, the ancient Egyptians used slave labor to build their pyramids, early Arab explorers were often also slave traders, and Arabic slavery continued into the twentieth century and indeed still continues in a few places. In the Americas some native tribes enslaved members of other tribes, and slavery was also an institution in many African nations, especially before the colonial period.

- ① African laborers voluntarily moved to the New World.
- ② Europeans were the first people to use slave labor.
- ③ Arabic slavery no longer exists in any form.
- ④ Slavery existed even in African countries.

정답 ④

[해설] ④ 본문 마지막 문장에서 노예제도는 많은 아프리카국가에서 관습이었다고 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한다.

① 본문 첫 번째 문장에서 농장 일을 시키려고 천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을 신세계로 끌고 오게 되었다고 했으므로 ‘자발적으로 신세계로 이주했다’는 내용은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 본문 두 번째 문장에서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로 노예들을 데리고 온 유일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다고 했으므로 ‘최초의 유럽인’은 본문과 일치 하지 않는다.

③ 본문 두 번째 문장에서 아랍의 노예제도는 20세기에도 지속되었고 실제로 여전히 몇몇 지역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으므로 ‘더 이상 어떤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본문과 일치 하지 않는다.

[해설] 수입된 노동력의 가장 악명 높은 경우는 당연히 대서양 노예무역이고 이로 인해 농장 일을 시키려고 천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을 신세계로 끌고 오게 되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비록 가장 큰 규모로 노예제도를 시행했는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로 노예들을 데리고 온 유일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다. 즉, 초기의 고대 이집트인들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예 노동력을 이용했고 초기 아랍 탐험가들 또한 노예 무역상이었다. 그리고 아랍의 노예제도는 20세기에도 지속되었고 실제로 여전히 몇몇 지역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몇몇 토속부족들이 다른 부족의 구성원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특히 식민지시기 이전에는 노예제도는 또한 많은 아프리카국가에서는 관습이었다.

- ① 아프리카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신세계로 이주했다.
- ② 유럽인들은 노예 노동력을 이용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 ③ 아랍의 노예제도는 더 이상 어떤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 ④ 노예제도는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존재했다.

[어휘] notorious 악명 높은	import 수입하다	slave 노예
* slavery 노예제도	* enslave 노예로 만들다	plantation 농장
practice 실행하다	on the large scale 대규모로	by no means 결코 ~않는
only 유일한	explorer 탐험가	trader 무역상
indeed 실제로	tribe 부족	institution ① 기관, 단체 ② 관습, 제도
especially 특히	colonial 식민지의	laborer 노동자
voluntarily 자발적으로	no longer 더 이상 ~않다	exist 존재하다

06. 어법상 옳은 것은?

- ① This guide book tells you where should you visit in Hong Kong.
- ② I was born in Taiwan, but I have lived in Korea since I started work.
- ③ The novel was so excited that I lost track of time and missed the bus.
- ④ It’s not surprising that book stores don’t carry newspapers any more, doesn’t it?

정답 ②

[해설] ② have + p.p. ~ since + 과거시제의 사용은 어법상 적절하고 태어난 시점은 과거이고 지금 현재 한국에 살고 있으므로 문맥상 시제일치 역시 어법상 옳다.

① 간접의문문의 어순을 묻고 있다. 직접의문문은 의문사 다음 ‘동사+ 주어’ 구조이지만 동사 뒤에 의문문이 올 때에는 ‘의문사+주어+동사’ 어순이므로 should you visit는 you should visit로 고쳐 써야 한다.

③ 감정표현동사 exite의 주체가 사물(novel)이므로 exited는 exit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④ 부가의문문은 앞에 부정문이 있을 때 뒤에 긍정이 와야 하고 앞에 동사가 be동사일때에는 be동사를 사용해야하므로 doesn’t는 is로 고쳐 써야 한다

[해설] ① 이 안내서는 당신이 홍콩에서 어디를 방문해야할지 말해준다.

② 나는 대만에서 태어났지만 일을 시작한 후 한국에서 살고 있다.

③ 그 소설이 너무 재미있어서 나는 시간가는 줄 몰랐고 그래서 버스를 놓쳤다.

④ 서점에 신문을 더 이상 두지 않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어휘] miss ① 그리워하다 ② 놓치다 ③ 실종되다, 사라지다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각 공무원

스파르타 실강반

합격생이 되는 빠른 방법은 박문각 스파르타 실강반입니다.

합격생 3명 중 2명은

1년 내 합격



5월 개강반

—2020—
한국산업의
트렌드대상 **1위**

모 / 집 / 중

최대 55% 할인 이벤트 진행

학원
강의

온라인
강의

개인지정
학습실

개인지정좌석

성적관리

일일 / 주간 / 월간
모의고사

부모님
안심 서비스

자녀 등원시간
알림 문자

철저한
생활관리

출결 관리
자습 관리



술술술 한자 & 속담(67)

| 전선헌 교수 - 선헌국어 네이버 카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http://cafe.naver.com/jshgotgan>

한자어 편 - 過猶不及(과유불급)/寸鐵殺人(촌철살인)

[훈과 음]

- 過猶不及
: 지나칠(과) 오히려(유) 아닐(불) 미칠(급)
- 寸鐵殺人
: 마디(촌) 쇠(철) 죽일(살) 사람(인)

[성어의 의미]

- 過猶不及(과유불급)
: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중용(中庸)이 중요함.
- 寸鐵殺人(촌철살인)
: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

[고사]

- 過猶不及(과유불급)
공자에게 제자 자공이 물었다.
“선생님, 자장과 자하 가운데 누가 더 낫습니까?”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장은 지나친 면이 있고 자하는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다.”
“그럼, 자장이 낫겠군요?”
공자가 다시 대답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에서 과유불급(過猶不及)이 비롯되었다.
-출전: 『논어(論語) 선진(先進)편』

• 寸鐵殺人(촌철살인)

중국 남송 시대의 학자 나대경은 종고 선사가 불교 참선에 대해 말한 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어떤 사람이 무기를 수레에 한가득 싣고 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반드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한 치도 안 칼이 있을 뿐이나 나는 그것으로 당장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라고 했다. 이 말이 비유하는 바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는 아무리 여러 가지 수단을 써도 원하는 경지에 이를 수 없고, 작은 것 하나라도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깨우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촌철살인(寸鐵殺人)’이 비롯되었다. 원래 ‘촌철(寸鐵)’이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길이의 칼 같은 무기를 뜻하는 말이고 ‘살인(殺人)’이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의미하지만, 작은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속된 생각을 버리고 작은 것에도 집중하여 참선하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의미가 바뀌어서 아주 짧고 간결한 말로 핵심을 찌르거나 깊은 감동을 줄 때 쓰는 말이 되었다.

-출전: 나대경 『학림옥로』

‘SPEED’ 영단어 암기(98)

603. futile

: 쓸데없는, 헛된(=vain, useless, worthless, ineffectual)
▷ We should not feel our lives were **futile**.
(우리 삶이 헛되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

604. humane

: 자비로운, 인간적인(=kind, considerate, understanding)
▷ She likes her husband's **humane** nature.
(그녀는 남편의 인간적인 면을 좋아한다.)

605. reckless

: 무모한, 앞뒤 살피지 않는(=careless, thoughtless, imprudent)
▷ She showed **reckless** valor.
(그녀는 무모한 용기를 보였다.)

606. imperative

: 필수적인, 반드시 해야 하는, 긴요한(=necessary, required, vital, essential)
▷ It is **imperative** that you attend the meeting.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필수다.)

607. compatible

: 양립하는, 조화하는(=consistent in keeping, consonant, congenial)
▷ This scanner is **compatible** with all operating systems.
(이 스캐너는 모든 운영체제와 호환이 된다.)

608. lethal

: 치명적인(=critical, deadly, fatal)
▷ My friend took a **lethal** dose of sleeping pills.
(내 친구는 치사량의 수면제를 복용했다.)

609. notorious

: 악명 높은(=infamous)
▷ This firm is **notorious** for intensive training to employees.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강도 높은 훈련으로 유명하다.)

610. literacy

: 읽고 쓰는 능력(=education, knowledge)
▷ She has worked with the adult **literacy** program.
(그녀는 성인 글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해 왔다.)

2021년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대비 개강안내

“제 3회 시험 박문각 수강생 8명 중 7명 합격”



박문각 나무의사
안종근 교수

5회 1차대비

실전문풀 + 모의고사

매주 일요일 7주, 70만원

개강 : 5월 16일(일) 10시~17시

박문각 나무의사 | 강남학원 02-3476-3670

박문각 공무원

마법 교정학

교정학 이론입문
용어 및 기초법령 정리

교정학 이준

마법처럼 쉽게 이해되는
단숨에 교정학

100점을 향한 마법같은 강의가 시작됩니다.

5월 11일 개강

화 09:00~13:00(8주)

노량진학원 02)815-7819, 3280-9990 | 온라인 02)3489-9500

박문각 공무원

✓ 약 력

- ✓ 전 검사
- ✓ 전 서울중앙지검근무
- ✓ 현 변호사
- ✓ 현 박문각공무원 형사법 전임교수

7급·9급·법원·검찰·교정·보호·출판·
경간부·소방간부·경찰·각종승진·군무원

김상천 형사법

형법·형사소송법 합격비법노트



김상천 형법 이론단과

매 홀수달개강(2개월 완성)

- ▶ 대 상 : 7급·9급·법원·검찰·경찰·해경·승진·군무원
- ▶ 일 시 : 매주 수·목 09:00~13:00
- ▶ 교 재 : 2021 스파형법(박문각) + 김상천 형법 합격노트(제본)

김상천 형사소송법 이론단과

매 홀수달개강(2개월 완성)

- ▶ 대 상 : 법원·검찰·교정·보호·출판·경찰·해경·승진·군무원
- ▶ 일 시 : 매주 금·토 09:00~13:00
- ▶ 교 재 : 2021 김상천 형사소송법(박문각)+김상천형소법합격노트(제본)

박문각 공무원

2021년 합격을 원한다면 검색창에

박문각 넷클래스



꼭 시험전 봐야하는 파이널 특강

서울시/지방직대비 행정법 파이널 강의

행정법 유대웅

5월 11일, 18일, 25일

매주 화, 총 3일, 각 3시간

☑ 강의 시간 **18:40~21:50**

☑ 총 9강 예정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4)

| 김태성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예와 그 법적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집행벌
-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폐쇄 - 직접강제
-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 - 즉시강제
- ④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행정벌

해설 [정답] ③

- ① (O) 이행강제금은 직위의무 또는 부직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장래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 이행시키는 수단으로서 집행벌이라고도 한다.
- ② (O) 「식품위생법」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직접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
- ③ (X)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경우 통상 철거명령의 형태를 띠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 절차에 의하게 된다. 즉시강제는 개인에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바 복구명령이라는 하명과는 공존할 수 없다.
- ④ (O)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고, 과태료의 부과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13.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④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을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①

- ① (X)
- ② (O)
- ③ (O)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2.10.31. 2000헌가12). 불법게임물에 대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수거·폐기를 명하고 그 불이행을 기다려 직접강제 등 행정상의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재 2002.10.31. 2000헌가12).
- ④ (O)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인 행정상 즉시강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발동에 있어서는 법규의 범위 안에서 다시 행정상의 장해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을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리상의 한계에 기속된다(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합헌]).

14.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 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ㄷ.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므로, 그러한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 ㄹ.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어 그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요구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해설 [정답] ④

- ㄱ. (O)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헌재 2005.7.21. 2003헌마282 등).
- ㄴ. (O)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6. 8. 17. 2014다235080).
- ㄷ. (X)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7. 4. 7. 2016도13263).
- ㄹ. (O)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7. 6. 15. 2013두2945).

1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O)과 옳지 않은 것 (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 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을 초과하여 각하된 후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 ㄷ.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처분서를 송달받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을 하는 내용의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그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 ㄹ.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ㄱ	ㄴ	ㄷ	ㄹ
①	X	X	O	X
②	O	O	X	O
③	O	X	O	X
④	X	X	X	O

해설 [정답] ④

- ㄱ. (X)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ㄴ. (X)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이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처분 상대방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2.09.27. 2011두27247).
- ㄷ. (X)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된다.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위 처분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비롯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위 소는 제소기간을 넘긴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대판 2014. 9. 25. 2014두8254).
- ㄹ. (O)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5.12.23. 2005두3554).

박문각 공무원

합격의 KEY! 교육행정 전문가 집단



교육행정직 합격반

전문에 전문을 더하다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전문가 **유희태 박사**팀과
교육학 전문가 **오현준 교수**님이 교육행정직 최단기간 합격을 위해 뭉쳤습니다.

STEP 01

과목별 개념 완성



과목별 이론 개념
정립을 통한
전반적인 교육행정직
수험 시작을 알리는 강의

STEP 02

과목별 심화 완성



과목별 이론을
최종완성하고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강의

STEP 03

기출 및 핵심요약



과목별 핵심이론 정리 및
기출분석으로
전범위에 대한 문제 적응력을
높여 주는 강의

STEP 04

동형모의 및 FINAL



실제 시험 환경을 통한
전범위 모의고사로
국가직 및 지방직
고득점 마무리 강의

박문각 군무원

Since 1972 합격 노하우 박문각

박문각 군무원

합격 노하우 **박문각 군무원** × 최적화된 1:1 집중 관리시스템 **스파르타**★
동형 모의고사6월 7일 (월)개강
[4주 과정]

최종 마무리 특강

7월 5일 (월)개강
[2주 과정]

EVENT

스파르타
모의고사

무료 접수 이벤트 中

5월 16일 일요일
10:00~11:155월
개설강의

국가정보학

5월 3일 개강
(월) 18:30 ~

정보사회론

5월 7일 개강
(금) 18:30 ~

심리학

5월 9일(일) 개강
(일) 14:00 ~

박문각 북스파

매일 100여 개 이상 어휘 학습으로
영어과목 실력 완성!

박문각

일일

모의고사

0원

2021 국가직
2021 공무원 시험 대비
완벽적중(어휘/문법)

박문각 일일
모의고사
-제1회-
영어 [어휘]

이름 : _____
학습관 : _____

~~7만원~~



“일일 모의고사 출제”

영어 오동훈 교수의 완벽적중 해설강의 제공!

- ✓ 핵심과목 영어의 어휘/문법 실력완성
- ✓ 주 5회, 월-금요일 문제 제공
- ✓ 1회 영어 객관식 20문항 제공

공무원/경찰 일일 모의고사 해설강의

★ **무료수강권** ★

**2021년
5월 28일까지**

- 01 박문각 온라인서점(북스파) 우측 상단 '박문각▶FREE 동영상강의' 배너 클릭
- 02 회원 로그인 → 나의학습 → 주문조회[나의쿠폰] 클릭
- 03 페이지 중간 [오프라인 쿠폰 온라인 쿠폰전환]을 클릭 후, 해당 할인키 입력 → [쿠폰전환하기] 클릭
- 04 공무원 카테고리에서 '일일모의고사 영어 해설특강(2021년 4월)' 상품 선택
- 05 결제페이지에서 쿠폰할인 적용 후 결제하기 클릭 → 고객센터(02-3489-9500) 전화연결 후 무료수강 승인확인 후 [나의학습]에서 수강



이강의
바로가기

5월13일 종이신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및 해설(4)

| 이명훈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2.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은?

- ①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 ②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 ③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 ④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정답 ④
예산주기는 3년의 과정으로 연속적이면서 중첩되어 진행된다. 즉, 2021년에는 2022년 예산의 편성(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 ①)과 심의(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 ③)가 이루어지고, 2021년의 예산이 집행(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 ②)되며, 2020년 예산의 결산과 회계검사(감사원의 2020년도의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 ④)가 진행된다. 하이패스 행정학 p724

13.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②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④
「국가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의 무분별한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편성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는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이다. 하이패스 행정학 p681

핵심체크		추가경정예산
의의	•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의결되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 예산단일성 및 예산한정성 원칙의 예외	
편성사유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재난과 사회재난)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특징	•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추가경정예산은 일단 성립하면 본예산에 흡수되어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되고, 통산하여 전체로서 결산심의를 받음 • 최근 우리나라는 추가경정예산의 잦은 편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편성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편성횟수 제한은 없음)	
현황	거의 매년 1~2회 편성	

14.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분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②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③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정부가 50%이상 출자한 기업으로 「정부조직법」이 아닌 특별법 또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정부 외부에 민간기업의 신분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행정학 p474

핵심체크		공기업의 의의
개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여러 사업 중 기업적·경영적 성격을 가지는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여 지배하는 기업	
설치동기	일반적 동기	• 시장실패 : 민간자본 부족(철도, 전력 등), 국방 및 전략상의 고려(군수산업), 자연독점산업의 횡포 방지, 정당의 정당정책이나 정치적 신조 등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촉진수단, 국가재정수입의 확충, 공공수요의 충족 목적 및 역사적 유산(해방 이후 일본인 소유의 귀속사업체의 공기업화) 등
특징	① 공공성(민주성 강조-1차적 목적) : 공공서비스원칙, 공공규제원칙 ② 기업성(능률성 강조) : 독립채산제의 원칙, 생산성의 원칙	

핵심체크	공기업의 유형		
구분	정부기업(정부부처형)	주식회사형	공사형
독립성	없음(법인격·당사자 능력)	있음(법인격·당사자 능력)	
근거법	정부조직법	회사법 또는 특별법	특별법
재원	정부예산	50% 이상 정부출자	100% 정부출자
특징	공공성>기업성	공공성<기업성	공공성=기업성
신분	공무원	임원:준공무원, 직원:회사원	
예산회계	정부기업예산법(특별회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독립채산제)	
예산성립	국회의결로 성립	국회의결 불필요(이사회결의로 성립)	
조직특성	독임형(이사회 없음)	이중기관제(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	
예	우편, 우체국예금, 조달, 양곡관리, 책임운영기관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대한주택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5. 동기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 ② 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 ④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따르면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정답 ①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면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동기가 유발된다. 하이패스 행정학 p514

핵심체크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
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산출/투입과 준거인물의 산출/투입을 비교하고 자신에 대한 처우가 불공정하다고 지각하게 되면 공정성을 얻기 위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는 이론	
공정성에 대한 반응	• 준거인물과 자신의 산출/투입이 일치한다고 지각 : 동기유발 없음 • 자신의 산출/투입이 작다고 지각(과소보상) : 편익 증대 요구, 투입 감소, 산출의 왜곡, 준거인물 변경, 본인의 지각 변경, 조직에서의 이탈 등 • 자신의 산출/투입이 크다고 지각(과다보상) : 편익 감소 요청, 투입 증대, 준거인물 변경, 본인의 지각 변경 등	

16.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실험결과와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 ②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
- ③ 실험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
- ④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는 경우

정답 ①
측정도구의 변화(①)는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반면, 표본의 비대표성(②), 호오돈 효과(③), 크리밍 효과(④)는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하이패스 행정학 p354

핵심체크		정책평가의 외적타당성 저해요인
호손 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	실험집단 구성원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인식 때문에 심리적 긴장감으로 인해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일반화 곤란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발에서의 편견'과 '실험집단의 실험조작'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일반화 곤란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실험 전 측정 받은 경험'과 '피조사자의 실험조작'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일반화 곤란	
표본(표본추출)의 비대표성	두 집단 간에 동질성을 확보하여 실험결과를 얻었더라도 선정된 실험집단(표본)이 사회적 대표성이 없으면 일반화 곤란	
크리밍효과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을 실험집단에 포함시키고, 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는 일반화 곤란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동일 집단에 여러 번 실험적 처리를 실시하여 실험조작에 익숙해진 집단으로부터 얻어진 실험결과는 일반화 곤란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각 공무원

하이패스

행정학 이명훈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
합격으로 증명하는 강의

7·9급 하이패스
행정학 이론입문

5월 14일 개강_8주

금/토 09:00~13:00 토:격주

교재 : 2021 하이패스 행정학(박문각 판)

[지방직/서울시]
전범위 동형모의고사

4월 22일 개강_6주

목 14:00~18:00

교재 : 프린트 제공

노량진학원 02)815-7819, 3280-9990 | 온라인 02)3489-9500

바로 듣고, 풀고, 질문하는 라이브 실전 모의고사 특강

박문각 ▶ NETclass

2021 공무원 합격, **박문각 넷클래스**로 완성됩니다! 문의 02-3489-9500



전선혜 국어

월~수 07:30~08:30(단숨에 모의고사)



노범석 한국사

금 19:00~20:10(파이널 모의고사)



이영신 영어

화/목 14:30~16:30(동의어 암기팁)



유대웅 행정법

화 18:40~21:50(파이널 모의고사)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학 기출문제 및 해설(4)

| 어대훈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6.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 ②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국 시·도·시·군·구·읍·면·동 단위에 설치한다.
- ④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정답 3번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7항 :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제1항 :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하는 사람은?

-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② 사법경찰관
- ③ 검사
- ④ 판사

▶ 정답 4번

▶ 기본적인 상식을 묻는 문제로, 심리·재판(판결, 결정 등)과 같이 일반적인 판사의 역할을 생각하면 된다. 다른 힌트로는 사회보장 파트에서 공부한 전심절차의 개념을 떠올려도 도움이 되겠다(판사 또는 법원의 심리를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행정절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18.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② 청소년쉼터
- ③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④ 청소년수련원

▶ 정답 4번

▶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암기도우미 : (힘들어하는 청소년을 위로해주는 느낌으로~) 터·치·회·자 ~→ 청소년쉼터,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19. 비에스텍(F. Biestek)이 제시한 전문적 사회복지실천관계의 기본 원칙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약점,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등을 포함하여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편견없이 받아들이야 한다.
- ②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자극하는 것이 관계형성의 객관성 침해임을 인식하여, 이를 피해야 한다.
- ③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분리하여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적절히 반응하여야 한다.
- ④ 문제의 원인이 클라이언트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심판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의 특성 및 가치관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 정답 2번

▶ ②번 지문은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관계의 원칙 중 의도적 감정표현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20. 다음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실천의 클라이언트 사정도구?

- 클라이언트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체계들과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제시
- 클라이언트와 가족이 외부 체계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범위와 특성을 확인
- 클라이언트와 외부 체계와의 관계에서 자원 교환이나 에너지의 흐름 등을 파악

- ① 생태도(ecomap)
- ② 가계도(genogram)
- ③ 소시오그램(sociogram)
- ④ 생활력도표(life-history grid)

▶ 정답 1번

▶ 매우 기본적인 내용으로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자체가 결정적 힌트이고 해설이므로 별도의 해설은 생략하고자 한다.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9급공무원 시험대비

박문각 합격예측 전국 모의고사

"합격자 3명 중 2명은 1년 내 합격하는 박문각의 진짜 학습관리"

성적관리

과목별 성적비교로
나의 위치 및
강·약점 분석

해설강의

명불허전
박문각 교수진의
알찬 무료
해설강의

합격예측

전국 응시생대비
직렬별
성적비교를 통해
합격 가능성 예측

오답노트

오답노트로
관리하는
과목별 약점 영역

* 박문각공무원 스마티티, 기숙연계반을 수강한 60명 중 40명 기준(2020년 국가직 필기/지방직 최종합격자)

온라인/오프라인 동시시행
2021. 05. 23(일)
오전 10:00

응시직렬

일반행정

사회복지

세무(지방세)

기술직

교육행정

P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

| 노량진(남부고시)학원

02)815-7819, 3280-9990 온라인 02)3489-9500

2022년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직, 보호직 공무원 시험대비
HUMAN 어대훈 사회복지사 1급 /공무원 사회복지학



HUMAN 강의 20년!!
기념이벤트

20th
ANNIVERSARY

★
20년 기념
특별한 할인혜택

최대 50%까지 진행되는 수업별 다양한 할인!!

※ 온 / 오프 수업별로 할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2022년대비 새롭게
신설된 커리큘럼!

공무원 시험 전공과목 부활!! 기본이론반 7월부터 START~!!
사회복지사 1급의 히트 강의!! 다빈출코드의 정규화!!

★
온/오프 수강생들에 쏟아지는 다양한 선물들

※ 수업별로 선물은 다를 수 있고, 선착순 진행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Human 마스크
 700박스 (인당 1박스 씩)



Human 에코백
 200개



Human 보들
 600개



사회복지사1급 : 학습 플래너
 (온라인 휴먼팩스오프라인 패키지 수강생 등)



공무원 온라인 : 치킨 100마리
 (패스 수강생)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 및 해설(4)

| 정정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5. 표는 갑국과 을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되고,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계층 \ 국가	갑국	을국
A	30%	60%
B	10%	25%
C	60%	15%

- ① 갑국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면, 을국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 ② 갑국의 하층 비율이 상층 비율의 2배이면, 갑국의 계층 구조는 타원형이다.
- ③ B에서 A로의 이동이 하강이동이고 B에서 C로의 이동이 상승이동이면, 을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 ④ 갑국의 하층 비율과 을국의 중층 비율이 동일하다면, 사회 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를 가진 국가는 을국이다.

15. 사회문화 - 계층이동 난이도 중 정답 ④

[정답 해설]

④ 갑국의 하층 비율과 을국의 중층 비율이 동일하다면, 을국의 계층구조는 다이아몬드형으로 사회 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를 가진 국가는 을국이다.

[오답 해설]

- ① 갑국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면, A는 중층, B는 상층, C는 하층이 된다. 따라서, 을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 ② 갑국의 하층 비율이 상층 비율의 2배이면, 갑국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 ③ B에서 A로의 이동이 하강이동이고 B에서 C로의 이동이 상승이동이면, B는 중층이다. 따라서 을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실질GDP가 감소하였다. 이에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는 ㉠ 확대 재정 정책, 중앙은행은 ㉡ 확대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며, 총공급의 변동은 없다)

- ① 갑국의 물가는 하락하였다.
- ② 갑국의 총수요는 감소하였다.
- ③ 정부의 소득세를 인하는 ㉠의 사례이다.
- ④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은 ㉡의 사례이다.

16. 경제 - 경기변동과 물가 난이도 중 정답 ④

[정답 해설]

갑국은 총수요(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감소)의 감소로 인해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실질 GDP의 감소와 물가의 하락이 나타난다. 또한 확대 재정 정책은 소득세를 인하, 확대 통화 정책은 국·공채의 매입이다.

④ 확대 통화 정책은 국·공채의 매입이다.

17. 표는 제품 A의 생산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된 A는 모두 판매된다)

(단위: 원)							
구분	생산량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평균 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비용	500	1,100	1,800	2,600	3,500	4,600	5,800

※ 평균 수입 = $\frac{\text{총수입}}{\text{생산량}}$

- ①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 총수입의 증가분은 점차 커진다.
- ②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 총비용의 증가분은 점차 작아진다.
- ③ 생산량이 3개일 때보다 5개일 때의 이윤이 더 크다.
- ④ 생산량이 6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17. 경제 - 기업의 합리적 선택 난이도 중 정답 ③

[정답 해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총수입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총비용	500	1100	1800	2600	3500	4600	5800
총이윤	200	900	1200	1400	1500	1400	1200

③ 생산량이 3개일 때보다 5개일 때의 이윤이 더 크다.

[오답 해설]

- ①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 총수입의 증가분은 1000원으로 동일하다.
- ②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 총비용의 증가분은(한계비용) 증가한다.
- ④ 생산량이 5개일 때 이윤이 1500원으로 극대화된다.

18. 다음은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_D 는 수요량, Q_S 는 공급량을 나타낸다)

수요함수: $Q_D = 100 - 3P$

공급함수: $Q_S = -20 + P$

- ① 시장 가격이 25일 경우, 초과 공급량은 20이다.
- ②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수요 함수이다.
- ③ X재의 시장 균형 가격은 30, 시장 균형 거래량은 10이다.
- ④ 최고 가격을 32 이상으로 설정해야 가격 상한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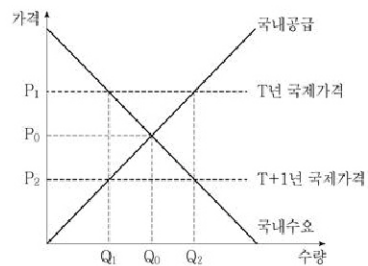
18. 경제 - 시장균형과 가격규제 난이도 중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100 - 3P = -20 + P$ 를 풀어보면 X재의 시장 균형 가격은 30, 시장 균형 거래량은 10이다.

[오답 해설]

- ①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시장가격 25를 각각 대입하면, 수요량이 25, 공급량이 5이므로 초과 수요이다.
- ② 제시된 수요함수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 ④ 가격 상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X재의 시장 균형 가격은 30이므로 최고 가격이 32이상으로 설정하면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19. 그림은 T년과 T+1년 갑국의 X재 시장을 나타낸다. 갑국은 자유무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T년과 T+1년의 국제가격은 각각 P1, P2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은 국제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에서 X재의 공급량에는 제한이 없다)



- ① T년 갑국은 X재를 수입한다.
- ② T+1년 갑국의 X재 교역량은 Q0Q2이다.
- ③ T년 갑국 소비자 잉여는 T+1년보다 크다.

④ T+1년 갑국 총잉여는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frac{(P_0P_2 \times Q_1Q_2)}{2}$ 만큼 증가한다.

19. 경제 - 수요와 공급제 난이도 중 정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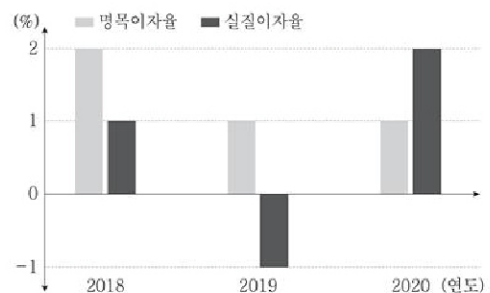
[정답 해설]

④ T+1년 갑국 총잉여는 거래량이 Q2로 증가하여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T년)와 비교하여 $\frac{(P_0P_2 \times Q_1Q_2)}{2}$ 만큼 증가한다.

[오답 해설]

- ① T년에는 국제가격이 갑국의 균형가격보다 높으므로 X재를 수입하지 않는다.
- ② T+1년 갑국의 X재 교역량은 Q1Q2이다.
- ③ T년 갑국 소비자 잉여는 T+1년보다 작다. T+1년은 거래량이 Q2로 증가하여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20. 갑국의 연도별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19년 물가 상승률은 2018년보다 더 낮다.
- ② 2019년의 경우 예금보다 현금 보유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 ③ 2020년 물가 수준은 2019년보다 더 낮아졌다.
- ④ 2020년의 경우 2019년보다 화폐가치가 하락하였다.

20. 경제 - 명목변수와 실질변수 난이도 중 정답 ③

[정답 해설] 물가 상승률은 명목 이자율 - 실질 이자율이다. 따라서, 2018년의 물가 상승률 1, 2019년 물가 상승률 2, 2020년의 물가 상승률은 -1이다.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가치가 상승하고, 실질 이자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낮더라도 예금을 하지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면 명목 이자마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금이 현금보유보다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최신교재와
다양한 혜택!**박문각 북스파**

형광펜 나눔 EVENT!

2021.05.10 ~ 06.06

형광펜
[초록색, 주황색 2종]



수험서 전문 쇼핑몰 **박문각 북스파**에서 **4만원 이상 구매시**

기존 금액별
사은품

+

형광펜
2종

수험서 전문 쇼핑몰 박문각 북스파에서
4만원 이상 구매 시(판매가격 기준)
기존 금액별 사은품 + 추가 사은품[형광펜 2종]을 더 드립니다.

◎ 박문각 북스파에서 형광펜을 무료로 받는 방법! ◎

- 1) 박문각 북스파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2) 로그인 후 총 결제금액 4만원 이상 상품을 선택 후 바로구매 또는 장바구니 담기 클릭(장바구니 페이지에서 결제하기 클릭)
- 3) 주문 결제페이지(2. 할인쿠폰 및 적립금)에서 사은품 선택란에 형광펜을 선택 후 원하는 결제방법으로 상품을 결제하면 끝!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시험대비」 형법 모의고사 및 해설(2)

| 오상훈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05.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의학적 판단으로서 법원이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향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④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05. 【정답】 ① 【해설】 범죄론 ♣ 난이도 하

- ① (X)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9.1.26, 98도3812).
- ② (O) 책임능력 유무는 '행위당시(범행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도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다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3.10.11, 83도1897).
- ③ (O) 제10조 제2항 ※ 임의적 감경
- ④ (O) 제9조, 제11조

06.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관련된 금지규범을 알지 못한 경우 그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 ②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③ 광역시의회 의원 甲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④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인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O) ㉡(X) ㉢(X) ㉣(O)
- ② ㉠(X) ㉡(O) ㉢(O) ㉣(X)
- ③ ㉠(O) ㉡(X) ㉢(O) ㉣(X)
- ④ ㉠(X) ㉡(X) ㉢(O) ㉣(X)

06. 【정답】 ② 【해설】 범죄론 ♣ 난이도 중

- ㉠ (X)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판 2005.9.29, 2005도4592).

㉡ (O) 대판 2015.1.15, 2013도15027

㉢ (O) 대판 2005.6.10, 2005도835

㉣ (X)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의 의정보고서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거나 전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관련 판례나 문헌을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다 하였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보좌관을 통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이 사건 의정보고서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대판 2006.3.24, 2005도3717).

07.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피해자를 세 번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해서 이를 뿌리쳤고, 피고인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으며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냈다면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체포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 ③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면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도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07. 【정답】 ③ 【해설】 범죄론 ♣ 난이도 중

① (O) 대판 2006.9.14, 2006도2824

② (O)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8.2.28, 2017도21249).

③ (X)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9. 12.24, 2009도9667).

④ (O) 대판 1982.10.26, 82도1529

08. 교사범 및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과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모두 성립할 수 있다.
- ②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과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모두 성립할 수 없다.
- ③ 미수의 교사는 기수의 고의가 없으므로 교사자의 가벌성은 부인된다.
- ④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08. 【정답】 ① 【해설】 범죄론 ♣ 난이도 중

- ① (X) 부작위에 의하여서는 피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작위의무있는 자(보증인지위)의 부작위에 의하여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 ② (O)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이중의 고의를 요하므로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방조범 모두 성립할 수 없고, 다만 간접정범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다(제34조).
- ③ (O) 미수의 교사란 피교사자의 행위가 처음부터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면서 교사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교사자에게는 결과발생에 대한 고의, 즉 기수의 고의(교사의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함정수사(agent provocateur)의 경우 교사자는 불가벌이 원칙이다.
- ④ (O) 【**불륜동영상 공갈교사사건**】 대판 2012.11.15, 2012도7407

09.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폭행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③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④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를 포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일죄로 보아야 한다.

09. 【정답】 ④ 【해설】 범죄론 ♣ 난이도 중

① (O) 대판 2013.10.31, 2013도10020

② (O) 【**택시기사폭행 업무방해사건**】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10.11, 2012도1895).

③ (O)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9.6.25, 2009도3505).

④ (X) 【**행위표준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사회관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2.7.23, 2001도6281).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각 경찰

2021년 2차 경찰시험대비

전원합격
관리반

기출문제풀이과정 5월 3일 [월]요일 개강

개강
이벤트

프리미엄 자습실 선착순 무료제공

* 2021. 2차대비 6개월 종합반 수강생에 한함 * 경찰시험 성적표 제시 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09:00 - 13:00	형사소송법 (김상천교수)	형 법 (오상훈교수)	경찰학 (한상기교수)	한국사 (이운우교수)	영 어 (정일현교수)	경찰학 (황준혁교수) 10:00~14:00

* 학원과 시험 일정에 따라 시간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풀이+전 범위+마무리특강]

4개월 전원합격관리반 (5과목)

2021.05.03~2021.8월

-1,600,000원

40%
할인가

960,000원

[기출문제풀이과정]

2개월 기출문제풀이반 (5과목)

2021.05.03~2021.06.26 (8주과정)

-1,000,000원

20%
할인가

800,000원

노량진학원 02)3280-1112 | 온라인 02)3489-9500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시험대비」 영어 모의고사 및 해설(3)

| 정일현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정일현 경찰영어

▶ 2차 대비 정일현 독해특강

개강 : 2021/05/10

시간 : [월] 15:00~18:30 [화] 15:30~18:30

▶ [기출] 21년 2차대비 정일현 영어 기출문제풀이

개강 : 2021/05/07

시간 : [금] 09:00~13:00

13.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 문장 뒤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A creative person is not limited in his thinking to “what everyone knows.” “Everyone knows” that trees are green.

- ㉠ The reason they don’t know is that they are so busy feeling what they are supposed to feel, thinking what they are supposed to think, that they never get down to examining their own deepest feelings.
- ㉡ The creative individual also knows his or her own feelings better than the average person. Most people don’t know the answer to the question, “How are you? How do you feel?”
- ㉢ The creative artist, however, is able to see that in certain lights some trees look blue, purple, or yellow. The creative person looks at the world with his or her own eyes, not with the eyes of others.

- ① ㉠-㉢-㉡
- ② ㉡-㉠-㉢
- ③ ㉡-㉢-㉠
- ④ ㉢-㉡-㉠

13. 【정답】 ④ 【해설】 독해-글의 순서 ♣ 난이도 중

나무가 푸르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는 창의적인 예술가는 나무가 때로는 다른 색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오고, 보통의 사람보다 창의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의 ㉡이 온 다음, 마지막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잘 모르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해석】

창의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나무가 푸르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 그러나 창의적인 예술가는 어떤 빛에서는 몇몇 나무가 파란색, 자주색이나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의적인 그 사람은 세상을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닌,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본다.

㉡ 창의적인 개인은 또한 보통의 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떠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한다.

㉠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 것을 느끼기에 너무 바빠서 자신들의 가장 깊은 감정을 탐구하는 것에 결코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

get down to ~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다, ~을 시작하다

average 평균의, 보통의

1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has weakened or removed barriers to the flow of information, goods, money, and people across national boundaries. It has also replaced the tariffs and immigration controls that formerly kept national economies somewhat isolated from each other. Thus, the economic globalization has also had an impact on immigration. As money, ideas, and goods are freer to move around the world, so are people. People in poor countries move out of rural regions and into cities in search of jobs and better lives. For the same reasons, people move from the less industrialized nations to the

more industrialized nations within all regions of the world. For example, large numbers of immigrants from Mexico and the Philippines move to the United States, immigrants from India and Jamaica move to England, and those from China move to Japan.

- ① causes of socioeconomic difficulties for immigrants
- ② economic globalization encouraging immigration
- ③ industrialization leading to rapid urbanization
- ④ the importance of economic system reform

14. 【정답】 ② 【해설】 독해-주제 ♣ 난이도 중

경제 세계화가 정보, 상품, 돈, 사람의 흐름에 대한 장벽을 약화하거나 제거하여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덜 발달한 곳에서 더 발달한 곳으로 이동하게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주제로 ② ‘이민을 장려하는 세계 경제화’가 가장 적절하다.

【해석】

경제 세계화는 국경선을 넘는 정보, 상품, 돈, 사람의 흐름에 대한 장벽을 약화하거나 제거했다. 그것은 또한 이전에 국가 경제를 어느 정도 서로 고립되게 한 관세와 이민 통제를 대체했다. 따라서 경제 세계화는 이민에 영향력을 미쳐 왔다. 돈, 아이디어, 그리고 상품이 더 자유롭게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러하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일자리와 더 좋은 삶을 찾아서 농촌 지역을 벗어나 도시로 이동한다.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산업화가 덜 된 국가에서 세계의 모든 지역 내에서 산업화가 더 된 국가로 이동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필리핀 출신의 수많은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인도와 자메이카 출신의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들어오며, 중국 출신자들이 일본으로 들어온다.

① 이민자의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

② 이민을 장려하는 세계 경제화

③ 급격한 도시화를 야기하는 산업화

④ 경제 시스템 개혁의 중요성

【어휘】

somewhat 어느 정도, 약간 in search of ~을 찾아서

tariff 관세

15.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Likewise, when we are publicly insulted, our intellect might shrug it off, but our emotions will complain that those people called us a nam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 and emotion is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headstrong five-year-old. ㉠ Such a child knows what he wants, and he will demand and whine until he gets it. ㉡ So it is with our emotions. When we are trying to lose weight, our emotions will scream: “I want that chocolate!” ㉢ If our intellect denies this request, our emotions might start whining — and might keep whining for hours. ㉣ If our intellect tries to comfort our emotions with a proverb — “Sticks and stones can break your bones, but words can never hurt you” — our emotions won’t listen to it.

- ① ㉠
- ② ㉡
- ③ ㉢
- ④ ㉣

15. 【정답】 ④ 【해설】 독해-문장의 위치 ♣ 난이도 중

주어진 문장은 Likewise(마찬가지로) 시작하면서 모욕을 받았을 때 감정과 지성이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앞의

내용은 지성과 감정이 상반되는 반응의 다른 사례가 나오고 뒤의 내용은 모욕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 제시되고 있는 ㉢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해석】

지성과 감정의 관계는 부모와 고집불통 다섯 살짜리 자녀의 관계와 비슷하다. 그런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요구하며 징징거릴 것이다. 우리의 감정도 이와 같다. 우리가 체중을 줄이려 할 때, 우리의 감정은 “그 초콜릿을 먹고 싶어!”라고 소리칠 것이다. 우리의 지성이 이 요구를 거절하면 감정은 징징거리기 시작할 것이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징징거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면, 지성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겠지만, 감정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흥분했다고 불평할 것이다. 우리의 지성이 ‘막대기와 돌은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험담은 절대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속담으로 감정을 달래려 하면 우리의 감정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휘】

publicly 공개적으로

shrug off ~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다

call ~ a name ~을 흥분다

headstrong 고집불통의

proverb 속담

whine 징징거리다

16.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But just as they get to the edge, ready to plunge in and drink, the trainer blows his whistle.

Arabian horses go through rigorous training in deserts. The trainer requires absolute obedience from the horses, and tests them to see if they are completely trained. (㉠) The final test is almost beyond the endurance of any living thing. After forcing the horses to do without water for several days, the trainer turns them loose and of course they start running toward the water. (㉡) The horses which have been completely trained and which have learned perfect obedience, stop. (㉢) They turn around and run back to the trainer, and stand there as a sign of perfect obedience even though they desperately want water. (㉣) When the trainer is sure that he has their obedience, he gives them a signal to go back to drink.

- ① ㉠
- ② ㉡
- ③ ㉢
- ④ ㉣

16. 【정답】 ② 【해설】 독해-문장의 위치 ♣ 난이도 중

주어진 문장은 말이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조련사가 호각을 분다는 내용이므로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말이 물이 있는 쪽으로 뛰어갔다는 내용 다음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해석】

아라비아의 말은 사막에서 혹독한 훈련을 겪는다. 조련사는 말에게서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고, 말이 완벽히 훈련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말을 시험한다. 최종 시험은 거의 어떤 생명체의 인내력을 뛰어 넘는다. 말에게 물 없이 여러 날을 강제로 견디게 한 후에, 조련사가 말을 풀어주면 말은 당연히 물이 있는 쪽으로 뛰기 시작한다. 그러나 말이 (물이 있는 곳의)가장자리에 도착해서 뛰어들어 물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조련사는 호각을 분다. 완벽히 훈련이 되고 완벽한 복종을 배운 말은 멈춘다. 말은 돌아서서 조련사에게 달려오고, 몹시 물을 원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복종의 표시로 거기서 기다린다. 조련사가 말이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는 말에게 물을 마시도록 돌아가라는 신호를 준다.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각 경찰

2022년 변화가 **합격의 기회**가 됩니다.

평생 0원 올패스

2022 경찰시험 대비

All Pass



경찰 올패스 보기



교재 구매까지 완벽 지원
최대 15만원 적립금 제공!

※ 경찰 올패스 구매 시 해당



수강기간 동안 최종합격 시
수강료 환급!

※ 경찰 올패스 구매 시 해당



2022년 개편과목 &
한능검·G-TELP 포함
전 강좌 무한수강



매일·매주·매월
**성적관리
모의고사**

박문각 공무원

수험 경제학의 새로운 길!

조경국 경제학

2021 대비
진도별
모의고사

5월 10일 개강

월 수 14:00~17:30 [8주]

교재: 진도별 모의고사 프린트 제공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전 문제풀이 연습을 원하는 수험생 必수강!

매회차 진도별로 다양한 기출문제 ·
기출변형문제 · 예상문제를 엄선하여 실전연습문제유형 분석 및
핵심이론 요약정리

노량진학원 02)815-7819, 3280-9990 | 온라인 02)3489-9500

박문각 노무사

박문각 노무사

검증된 강의, 2020년 2차 시험 적중!
올패스로 무제한 수강까지
노무사 시험은 박문각이 정답입니다

현직 노무사의
현업 issue

**완벽
적중!**

노동법
유정수 노무사



GS 모의고사
적중 신화

**100%
적중!**

인사노무관리
임현진 노무사



출제경향에 따른
완벽 교재

**교재
100% 적중**

행정쟁송법
조홍주 교수



경영학
박사!

**적중의
신神**

경영조직론
윤미경 교수



입성과 동시에
적중!

**민소법
최강자**

민사소송법
이혁준 교수



박문각 교수님들과 현직
노무사님이 직접 첨삭
해주시는 높은 퀄리티의
'온라인 첨삭반' 덕분에
오직 인강만으로도 노무사
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차 합격 수강생 박*울



2차 합격 수강생 한*진

깔끔한 자료와,
컴팩트한 교재가 좋았으며,
GS3기 때 나눠주신 자료의 주제가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2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시험대비」

이선화 교육학 논술 모의고사(1)

| 이선화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2022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이선화 교육학 논술

제1차 시험	1교시	1문항 20점	시험 시간 60분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은 ○○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김 교사가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최근 교육 상황에 대한 생각 중 일부이다. 이 내용을 읽고 ‘학업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수업지도, 교육평가, 교사의 자기개발을 구성요소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 [20점]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격차가 심화되었다는 뉴스를 보며 많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도 중위권 학생들의 폭이 줄어든 것이 느껴지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학업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와 교사가 여러 측면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교육과정 개발에서부터 학교가 중심이 되는 접근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가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가 될 때,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과 실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에는 교육목표를 설정한 후, 평가를 계획하고, 구체적인 학습내용과 수업활동을 계획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상황에서는 교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완전학습을 추구해야 합니다. 캐롤(Carroll)의 교수이론은 학업성취도를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실제로 사용한 시간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관점으로 학업성취도를 이해하게 해 줍니다. 이러한 이론을 활용한다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수방법을 활용할 때, 수업에 대한 학생 참여가 증진되어 학업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모두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협력적인 교수방법을 활용한다면, 모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학업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를 통해서도 학업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생들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목적을 학생들 간의 상대적 비교나 절대적 목표로 두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두는 것도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노력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의 강요나 지도에 의하지 않고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거나,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교사의 자발적 의뢰를 바탕으로 교내외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 점>

○논술의 내용 [총 15점]

- 스킵백(Skilbeck)의 입장으로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의 관점을 파악하여 이러한 개발 관점에서 필요한 교사의 역할을 2가지 제시하고, 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위긴스와 맥타이(Wiggins & McTighe)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을 사용할 때,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는 이유를 2가지 서술 [4점]
- 캐롤(Carroll)의 교수이론에 근거하여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교사가 노력할 수 있는 사항 2가지를 설명하고, 학생중심적 교수방법의 하나인 협동학습을 실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2가지 서술 [4점]
- 학기 시작 전 시행하는 평가를 통한 학업 격차 해소 방안을 2가지 서술하고, 개인의 향상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1가지 제시 [3점]
-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학 유형 2가지를 찾은 후, 전자의 실행 방안을 2가지 제시하고, 후자의 실천 시 지켜야 할 사항을 2가지 서술 [4점]

○논술의 구성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과 ‘학업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 관련자료 】

【 학교중심 교육과정 개발 】

- (1) 개념:학생들이 구성원인 학교에서 학생 학습 프로그램을 계획, 설계, 시행, 그리고 평가하는 것(Skilbeck, 1984)

(2) 필요성(Skilbeck, 1984)

- ① 중앙 집중적 교육과정 개발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 ② 중앙 집중적 교육과정 개발 방식은 모든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학생에게 타당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러한 이유로 중앙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그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음
- ③ 스킵백의 주장
 - a 교육과정 결정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할 필요. 사회 전반적 의사결정 과정에 당사자의 직접적 참여를 통한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듯, 교육과정 결정에 있어서도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b 중앙 집중적인 통제 모델이 쇠퇴하는 추세
 - c 학교는 학교를 둘러싼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사회 기관. 학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중앙 집중화된 체제에서는 학교가 자기결정권, 자가지시적이 될 수 없음.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계획, 설계는 학교가 가장 잘 할 수 있음
 - d 학교는 최소한 교육과정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예견치 못한 상황에 맞게 채택하여 수정하고 적응시킬 수 있어야 함.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가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구성할 자유와 책임을 가져야 함
 - e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계획, 설계, 평가를 포함하는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의 여지가 없다면 실현될 수 없음
 - f 학교가 이제 지역, 국가의 연구 개발 기관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발 기관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음

(3) 타당성

- ① 최근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중앙 집중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전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됨. 국가 혹은 지역의 교육과정 영향 하에 있는 일반적인 학교 체제에서 학교가 교육과정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② 월튼(Walton, 1978)은 담당 교사가 수업에 사용할 교재를 채택하거나 선택하는 것도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로 볼 수 있다고 주장
- ③ 결국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학교만이 주도하거나 학교 밖의 중앙 정부만이 주도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고,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과 중앙 집중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것이 되어야 함

【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 】

(1) 후진설계모형, 거꾸로 설계모형, 역방향 설계모형, 이해중심 교육과정

(2) 특징

- ① 전통적 교육과정 개발 방식과 비교할 때, 2단계, 3단계 순서가 역전된 모형
- ② 학생의 이해력 신장을 중심에 두고 이해중심적 교육과정 설계를 중시: 교육과정의 목표와 활동을 모두 중시하는 설계 추구
- ③ 목표설정 과정에서 교과와 내용 기준을 반영하며, 평가 계획을 통하여 내용과 관련된 수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현장의 수업을 일치시킬 수 있음

(3) 절차:바라는 결과의 확인 ⇨ 수락할 만한 증거의 결정 ⇨ 학습경험과 수업의 계획

① 바라는 결과의 확인:목표설정

- 영속한 이해: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가지식

정도	내용
설명	• 사실이나 사건 행위에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능력 • 현상, 사실을 조직적으로 설명하기, 관련짓기, 실례 제공하기
해석	• 숨겨진 의미를 도출하는 능력 • 의미 있는 스토리 말하기, 적절한 번역 제공하기, 자신의 말로 의미 해석하기
적용	• 지식을 새로운 상황이나 실제적인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 실질적인 맥락에 적용하여 사용하기
관점	• 비판적이고 통찰력 있는 견해를 지닐 수 있는 능력 •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공감	• 타인의 감정과 세계관을 수용하는 능력 •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자가지식	• 자신의 무지를 알고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반성할 수 있는 메타인지적 능력 • 메타인지적 인식 보여주기, 습관 자각하기, 학습과 경험의 의미 숙고하기

박문각 임용

2022학년도 유아 임용의 정석



박수민 유아교육

체계적인 이해중심의 해법강의

“합격플러스”

6~7월 교직논술 실전반(8주)

직강 - 개강 : 6월8일 **화 13:00~17:30**

인강 - 개강 : 6월9일 **수 18:00경 업로드**

★ 직강 (50명) 입금 선착순 마감 : 반드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계좌로 입금 바랍니다.

수강 신청 : 2021년 4~5월 논술 기초반 수강생(인강 포함) 우선 신청

- 논술 기초반 수강생 우선 접수 기간 : 2021 5/17(월) 09:00~11:00

- 미 마감 시 모든 수험생 : 12:00부터~마감 시까지

★ 직강반 50명 접수 인원이 초과할 경우, 인강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10-784448 (주)박문각임용고시학원



「2022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시험대비」

정혜영 전문상담 모의고사 및 해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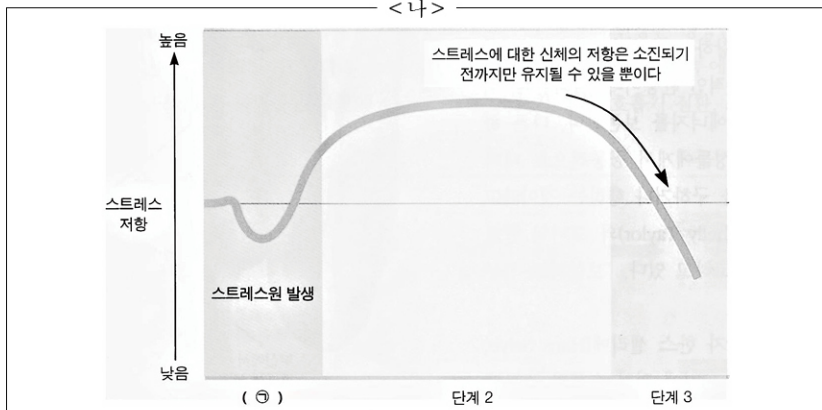
| 정혜영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01. (가)는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성훈이(고3, 남)를 상담한 사례 내용이고, (나)는 한스 셀에(Hans selye)의 일반적응 증후군 이론의 단계에 따른 스트레스 저항 수준을 나타낸 그래프 자료이다. 다음 조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2점]

< 가 >

- 의뢰경위: 성훈이는 곧 있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이 높아져 상담을 의뢰함.
○ 면담내용: ㉠ 수학능력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공부량을 늘리거나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 낮설거나 불확실한 상황을 무척 불편해했다. 상황이 닥치면 내가 잘 해내지 못해서 나쁜 결과가 오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봐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내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대회를 나가거나 자격증 시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인생을 결정하는 너무 큰 시험이고,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서 더욱 불안하다.

< 나 >



< 조 건 >

- 한스 셀에(Hans selye)의 일반적응 증후군 이론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1단계에 해당하는 (가)와 (나)의 ㉠의 단계 명칭을 쓰시오.
○ 그레이(J. Gray)의 강화민감성 이론을 바탕으로, (가)의 ㉡에서 알 수 있는 성훈이의 행동체계가 무엇인지 쓰시오.

[심리학개론 / 성격심리학]

[2점/상]

[출제 의도] 심리학개론 영역에서 스트레스 시대인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 발생 및 인간의 적응 과정에 대한 한스 셀에의 일반적응 증후군 이론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성격심리학 영역에서 보상과 처벌에 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기질적 특성에 관한 그레이의 강화민감성 이론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모범 답안] ㉠ 경고(반응) 단계 ㉡ 행동억제체계

[해설]

- 한스 셀에(Hans Selye, 1978)의 일반적응 증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 이론은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몸 전체에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으로서,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단계는 경고(반응) 단계로 신체는 위기 상황에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대처하려고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저항기로서 신체는 도파 또는 투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마지막 단계는 소진기(피로기)로서 위기에서 도파하거나 투쟁해서 물러치기 못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신체가 스트레스에 대응할 능력, 즉 생리적 자원이 바닥나게 된다.
■ 존 그레이(J. Gray)의 강화민감성 이론에 의하면 보상과 처벌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3가지 행동체계를 제시한다. 그 중 행동억제체계(BIS) 처벌, 불확실성, 낮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회피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처벌체계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체계는 뇌간과 전두엽의 일부가 관련되며 위험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조심스러운 회피행동을 촉진함으로써 걱정과 불안을 느끼기 쉬운 성격특질에 영향을 미친다.

[채점 기준] 각 1점

02. 다음은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은지(고1, 여)를 상담하는 축어록 내용이다. 엘리스(Albert Ellis)의 합리적정서적행동치료의 ABCDE 모형을 바탕으로, ㉠, ㉡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쓰시오.[2점]

< 축 어 록 >

김교사: 은지야, 어떤 일이 있어서 상담을 의뢰했니?
은 자: 최근에 친한 친구인 수연이와 싸워서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 그 일이 있고 나서 계속 우울해요.
김교사: 어떤 생각이 들길래 우울하지?
은 자: 또 친구에게 잘못했구나! 그렇게 친구들에게 잘못된 행동들을 하니 너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거야!
김교사: 음.. 그렇구나. 마치 너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안되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은 자: 당연하죠! 어느 누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김교사: 그런데 은지야, ㉡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행동을 한 번쯤은 하지 않았니?
은 자: 음.. 그럴까요?

김교사: 그럼. 그리고 지금, 네가 '나는 친구들에게 잘못을 많이 한 나쁜 아이야. 난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너의 기분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니?
은 자: 그건 아니죠. 더 기분이 나빠지고 있으니까요.

[상담이론과 실제]

[2점/하]

[출제 의도] 상담이론과 실제 영역에서 비합리적 신념에 의한 증상 발생 과정에 대한 엘리스의 ABCDE 모형에 관한 지식 및 개념 방안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모범 답안] ㉠ (정서적)결과 ㉡ 논박

[해설]

- 성격원리(ABCDE 모형): 선행사건은 개인에게 정서적 혼란을 야기하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 우울, 자책, 분노 등 개인의 정서를 촉발하는 사건이다. 신념은 자신과 타인, 세상, 사건, 상황 등에 개인이 가지게 되는 태도나 믿음, 사고방식을 뜻한다. 신념체계는 합리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으로 구성되며 비합리적인 신념의 경우 당위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정서적) 결과는 선행사건 후 개인의 신념체계를 통해 사건에 대해 해석을 함으로써 유발되는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뜻한다.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통해 해석을 하게 될 경우 불안, 분노, 죄책감, 수치심 등의 정서가 유발된다. 논박은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 도전하고 그것의 합리성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부정적적이고 자기파배적인 생각을 포기하도록 돕는다. 이는 상담의 목표가 된다. 효과는 합리적인 신념체계를 갖게 되며 좀 더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채점 기준] 각 1점

03. 다음 (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2점]

< 가 >

- 융(Jung)은 이것을 특수한 감정으로 이루어진 무의식 속의 관념덩어리라고 하였으며, 트라우마가 기원이 되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의식을 자극하여 질서를 교란시키며 주체자에게 혼란이나 공포를 조장하여 증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것에 사로잡히게도 만든다.
○ 머레이(Murray)는 이것을 다섯 단계의 성격발달단계를 거치면서, 각 단계에서 경험되는 쾌락이 종식됨에 따라 생겨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개인이 특정 단계에 고착될 경우, 이것은 성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자아와 초자아의 발달을 방해할 경우, 자발성과 유연성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든다.

< 나 >

- 지은이(초1, 여)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때로는 엄마가 학교까지 데려다주지 않으면 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는다. 물건을 사러 가거나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등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장소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 가족들의 말을 잘 듣는 매우 유순한 성격을 지녔지만, 의존성이 지나치게 강하고, 집에 있을 때도 책상 밑이나 장롱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많아 지은이의 부모님은 지은이가 보통 아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 조 건 >

- 융(C. Jung)의 분석심리학과 머레이(H. Murray)의 욕구 및 동기이론을 바탕으로 (가)에서 제시하는 공통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쓰시오.
○ 머레이(H. Murray)의 욕구 및 동기이론의 5가지 발달단계 이론에 따르면, (나)의 지은이는 어떠한 단계에 고착되어 있는지 쓰시오.

[성격 심리학]

[2점/하]

[출제 의도] 성격심리학의 자주 기출된 기초적 영역으로 융과 머레이의 콤플렉스 개념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머레이의 성격발달단계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모범 답안] ㉠ 콤플렉스 ㉡ 폐소단계

[해설]

- 융(C. Jung)은 콤플렉스를 특수한(대개 고통스러운) 종류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콤플렉스는 하나의 핵 요소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이 핵 요소는 강한 정감이라는 심적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심리적인 여러 요소 중 그 정감의 성격에 맞는 몇 가지 내용들을 자석이 자기장을 형성하도록 핵요소에 결부된다. 의식이란 많은 콤플렉스가 연결된 것으로, 콤플렉스는 의식을 자극하여 질서를 교란시키며, 심해지면 자아는 콤플렉스에 사로잡힌다. 즉 주체자의 행동의 원인이 된다. 콤플렉스는 인격을 가진 일부처럼 행동을 하여 주체자에게 혼란이나 공포를 조장하고 꿈과 증상을 만들어낸다. 꿈에 나타나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콤플렉스가 인격화한 것이다. 콤플렉스를 의식화한다는 것은 인격성숙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콤플렉스의 기원은 트라우마이다. 즉 어떤 감정적 충격 같은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의식으로부터 정신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 머레이(H. Murray)는 프로이트의 성격발달단계를 바탕으로 아동기를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섯 단계의 콤플렉스를 경험한다고 보았다. 각 단계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필연적으로 종결되는 즐거움의 종류라고 보았으며, 각 단계는 이후 발달을 지배할 무의식적 콤플렉스의 형태로 우리의 성격에 남는다고 보았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발달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다섯 가지 콤플렉스를 모두 경험한다. 그러므로 콤플렉스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개인이 어떤 단계에 고착되어 있는 상태가 극히 명백한 경우이다. 머레이의 성격발달 단계에서 폐소단계에서는 단순 폐소 콤플렉스를 경험할 수 있다. 즉, 안전하고 격려된 작고 따뜻한 어두운 장소를 원할 때 경험되는 것으로, 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려고, 수동적이며, 과거의 친숙하고 안전한 행동을 지향한다.

[채점 기준] 각 1점

박문각 편입

2019학년도
30명 전원합격
2018.11월 서성한반 기준

2020학년도
25명 전원합격
2019.11월 서성한반 기준

2021학년도
32명 전원합격
2020.11월 서성한반 기준

3년 연속 서성한특별반 전원 **합격 신화!**

2021 박문각편입

대학편입 상위권 합격전략 설명회

종로 5.21(금) 15:00 / 강남 5.22(토) 14:00

설명회 참석자 전원 혜택

100%
할인

강남, 종로
5월 수강료

10만원
할인

2022대비 이룸패스
인강 수강료 지원

복습동영상
0원

강남, 종로
복습동영상 지원

Ch

카카오톡에서 박문각편입을 검색해보세요!

강남 상담 02)508-4551

종로 상담 02)6182-9621

박문각 공인중개사

1위 공인
중개사

- 2020 한국산업의 1등 브랜드 대상수상 -

박문각

쉽게 공부하고 한 번에 합격!
수험생의 합격만 생각하겠습니다.

강남학원

5월 3일
개강

단원별 예상 문제풀이 특강 일정 안내

시간/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수업 14:30~17:00	세법	학개론	공법	중개사법	민법	공시법
교수진	정석진 하헌진	박성호 김백중	최성진 오시훈	고형석 신정환	김덕수 김정호	임의섭 박윤모

꼭! 필요한 레마!! 하루 완성!!

제 32회 공인중개사 대비 일요 레마특강

일자	시간	과목	교수	주제
6월 6일	10:00~17:00	부동산학개론	김백중 교수	익힘장 특강
6월 13일	10:00~18:00	부동산공법	오시훈 교수	비교정리 특강
6월 20일	09:40~1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덕수 교수	핵심판례, 사례 특강
7월 4일	10:00~18:00	공인중개사법	신정환 교수	총정리 특강
7월 11일	09:40~18:00	부동산공법	최성진 교수	비교정리 특강



*수강료 : 각 10만원(수강생 50% 할인), 교재 별도, 온라인 강의 제공(시험일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남학원 02)3476-3670 | 온라인 02)3489-9500

박문각 공인중개사

합격
기준

박문각 공인중개사

합격예상문제 동영상 강의 무료



박문각 ▶ **FREE** 동영상강의
(<http://lec.pmg.co.kr>)

교재 구매 시 무료 동영상 강의 인증키가 제공됩니다.



▶ 강의 신청 QR



2021년 대비 박문각 공인중개사 기본서 / 합격예상문제 / 실전모의고사 구매 시 무료 수강쿠폰이 제공됩니다.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및 해설(2)

| 이 혁 교수 | 박문각중로공인중개사학원

08.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 ②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 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 ③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④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⑤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08. 정답 ②

- ①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만 적용한다.
- ③ 고급주택은 중과세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택과 동일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④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 ⑤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09.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
- ㄷ.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09. 정답 ⑤

- ㉠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재산세 물납 부동산의 가액 평가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10.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21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 ②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 ③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10. 정답 ⑤

- ①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
- ②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다.
- ③ 세대별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 ④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폐지 되었고 분납은 가능하다.

1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 ② 3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 ③ 2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④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1. 정답 ⑤

3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12.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 ④ 지상권의 양도
- ⑤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

12. 정답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과세대상 종합 ◆

구 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제외
부동산 등	(1) 토지 및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역권 · 기계장비 ·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3) 기타자산 ① 특정법인 주식 ②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③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④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⑤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	·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식등	(4) 주식 ① 상장주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 장외양도분 ② 비상장 주식	·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시
파생상품등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13.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 없이 그 공유 토지를 공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 ④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 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13. 정답 ②

②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③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경우 모두 지분변동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박문각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1위 박문각

2021년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교육부문 선정

2021 올패스 **합격**

누구보다 빠르고 확실한 합격!

공인중개사 1위 박문각과 함께라면

2021년 합격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2021년
시험일까지
무제한 수강!



20년 154문항 적중!
온라인 전국
모의고사 제공!



시험 직전
총 정리
LIVE특강 제공



온라인 수강 문의 02)3489-9500

- ④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⑤ 매매원인 무효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제되어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14.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

-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②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증여를 받은 날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④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상속개시일

14. 정답 ③

수용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판결 확정일로 한다.

15. 2013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21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

- 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③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④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15. 정답 ①

※ 양도차익 계산

구분	원칙	예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실지거래가액	1. 추계결정(실지거래가액 미확인 및 불인정시)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기타자산	실지거래가액	추계결정가액

참고 추계결정가액의 적용순서

- ① 취득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② 양도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 - 추계조사 결정 경정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적용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양도가액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21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21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②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③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다.

16. 정답 ②

- ① 양도일(3월21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5월 31일까지)예정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양도소득세 분납금액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금액
 2000만원 초과: 100분의 50이하 금액
 따라서 16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초과 금액인 600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③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초과금액인 10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④ 양도차손이 발생하거나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박문각 법무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1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해냈습니다. 2014년 ~ 2020년
7년 연속 수석합격자 배출!

박문각 법무사 온/오프 수강생 기준

2020년 법무사 수석/최연소 포함
124명 중 88명 합격자 배출!

박문각 법무사 온/오프 수강생 기준

온라인도 강하다! 합격자 총 88명 합격자 중,
63명 온라인 강의 수강생

박문각 법무사 온/오프 수강생 기준

검증된 온라인 시스템! 2차 온라인점삭
합격률 73.9%

2019 2차 올패스 온라인점삭 수강회원 기준

2022 법무사 얼리버드

- 선행학습 무료제공 -
- 최종합격 수강료 환급 -

1차 실전 모의고사

2회 4월 4일(일) / 3회 5월 2일(일) / 4회 5월 30일(일)

서울법학원 02)887-9161~3 | 온라인 02)3489-9500

박문각 공인중개사

1위 공인
중개사 **박문각**

2021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쉽게 공부하고 한 번에 합격!
수험생의 합격만 생각하겠습니다.

종로학원

**5월3일
개강**



종로박문각 공인중개사 특별장기회원(4개월코스) 대모집!

**적중
예상**

단원별 문제풀이 특강

출제 예상문제 풀이를 통해
합격점수를 얻는다!!

5월 3일(월) 개강!

14:30~17:00

강의교재 『박문각판 합격예상문제집』

합격전략 설명회

날짜	요일	시간
5월18일	화	오후 3시
5월21일	금	
5월26일	수	

(설명회 사전예약 홈페이지 참조)

특별장기회원(4개월코스) 모집!

~~장기회원수강료 120만원~~

90만원 (1,2차반)

- ✓ 3명 이상 동시등록 시 추가 할인
- ✓ 타학원 환승 / 재수생 추가 할인

● 교재 미포함 상품입니다.

종로학원 02)733-2288 | 온라인 02)3489-9500

박문각 공인중개사

하루에 다 끝내는 일요 레마특강



노량진	5월 23일(일)	09:40~17:00	학개론 국승옥	계산문제 풀까? 말까?
강 남	6월 6일(일)	10:00~17:00	학개론 김백중	익힘장 특강
	6월 13일(일)	09:40~18:00	공법 오시훈	비교정리 특강
	6월 20일(일)	09:40~18:00	민법 김덕수	핵심 판례/사례 특강
노량진	6월 6일(일)	09:40~18:00	민법 이승현	핵심 판례/사례 특강
	6월 13일(일)	09:40~18:00	공법 최성진	비교정리 특강
	6월 20일(일)	09:40~18:00	공법 이석규	비교정리 특강
종 로	6월 6일(일)	09:40~18:00	학개론 이영섭	쉬운 것만 골라 60점!
	6월 20일(일)	09:40~18:00	민법 민석기	핵심 판례/사례 특강
강 남	7월 4일(일)	10:00~18:00	중개사법 신정환	총정리 특강
	7월 11일(일)	09:40~18:00	공법 최성진	비교정리 특강
종 로	7월 4일(일)	09:40~18:00	공법 최성진	비교정리 특강
	7월 4일(일)	09:40~18:00	공법 박희용	비교정리 특강
	7월 11일(일)	10:00~14:00	세법 정석진	고득점 비교정리 특강

과목별 핵심 레마 선정! 다양한 혜택까지!

미리등록 특별할인 & 복습용 동영상강의 제공

선착순
마감!

강남 박문각
02-3476-3670

노량진 박문각
02-812-6666

종로 박문각
02-733-2288

박문각 감정평가사

박문각 감정평가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1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4년 연속
전체/실무 수석
합격자 배출!**

2017 ~ 2020
서울법학원 온/오프 수강생 기준



**최종합격 수기
총 167건
업계최대!**

~ 2020. 1. 10
20줄 이상 합격수기 등록 수 기준



**감정평가사
브랜드 검색 수
1위!**

2019. 1 ~ 2019. 12
네이버 DataLab 브랜드 검색 기준



**온/오프
수강생 수
1위!**

감정평가사 2차 단과 / GS스터디
온/오프 수강생 기준

2022 대비 감정평가사 동영상 강의

감정평가사 올패스



22년 최종합격 시
수강료 환급



교재구매시 최대
20만 포인트 지급



업계유일 온라인
첨삭 서비스

2차 단과패키지

기본
이론

기초
문풀

종합
문제

기출
문제

2022 대비
기본 이론 개강

2021 대비
3기 스터디 개강



감평실무
유도은 평가사



감평이론
지오 평가사



감평법규
강정훈 평가사



감평법규
도승하 평가사

서울법학원 02)887-9161~3 | 온라인 02)3489-9500

합격, 박문각

BOOKs 

화제의 책

HOT



이유진 편저 / 17,000원

이유진 국어 마무리 출제코드 99

2021 국어 마무리 합격 전략

- Part 1** 국어 전 범위 출제코드 99
 - Part 2** 2021 모두의 약점
 - Part 3** 백일기도 모의고사 오답률 상위문항
- 부 록** 어문규정

HOT



유대웅 편저 / 29,000원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풀기

최적의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최신 출제 경향 반영한 문제 구성과 완벽 해설
- 소방간부, 5급 승진, 경찰, 군무원 등 기출문제의 OX 지문화